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000448-10

GOVP1200609244

T0006262

가계자산 조사방법 연구

2005. 12



통계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2005년도 연구과제인 「가계자산 조사방법 연구」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2월

통계개발팀장 최성욱

연구자 : 박소현

요 약 문

과 제 명	가계자산 조사방법 연구		
중심단어	가계자산, 자산, 부채, wealth, 조사방법		
연구기관	통계기획국 통계개발팀	연 구 자	박 소 현
연구기간	2005. 2. ~ 2005. 12.(11개월)		

가계의 자산은 가계가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계획하고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가계가 공평하게 갖고 있지 않으며, 불공평이 심화될 때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자산에 대한 정보는 정부정책과 연구 자료로 유용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계의 자산규모에 대한 어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자산에 대한 통계 개발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가계가 소유자산에 대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데 기인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일부 선진국들은 가계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LWS에 참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가계조사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조사방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각 국가의 조사내용을 분석해보면 우선 횡단면 표본을 사용하는 국가와 패널표본을 사용하는 국가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계자산에 대한 전문조사는 횡단면 표본을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수행하고 있다. 횡단면 표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확률표본이외에 자산이 편중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부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본을 선정, 2가지 표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조사에 평균 1시간이상 소요될 만큼 조사내용이 다양하고 자세하며, 평균치를 발표하는 다른 통계들과 달리 자산의 편중을 고려하여 중앙값(median)에 대한 통계들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다.

낮은 응답률 등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가계자산에 대한 조사보다는 노르웨이처럼 행정자료를 이용한 가계자산의 추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 차

제1장 서론	2
제2장 국가별 가계자산 조사방법	4
제1절 횡단면 표본조사 국가	5
제2절 패널 표본조사 국가	30
제3절 기타국가	43
제3장 조사단계별 조사방법 비교	55
제4장 행정자료의 이용방안	60
제5장 결론	66
참고문헌	66
부 록	69

I . 서 론

제 1 장 서 론

가계의 자산(asset)은 소득축적, 자본이득 또는 유산 등을 통해 창출되며, 창출된 자산은 자산소득의 발생 또는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규모를 스스로 배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산은 소비, 주거, 은퇴시기 결정 등 가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가계가 공평하게 갖고 있지는 않으며 불공평이 심화될 때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계의 자산은 학력, 직업 등 가계의 특성과 자산과의 관계, 가계 간 자산분포의 불평등 정도, 가계의 소비행위, 자산소득의 추정, 자산의 구성형태, 세대 간 자산의 이전행위(유산) 등 여러 가지 연구 및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계의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가계자산과 관련된 통계의 개발이 다른 부문의 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원인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가계자산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더구나 주택, 토지 등 부동산가격의 급상승이 빈번한 우리나라는 자산가격의 상승이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에게는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하며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여러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계자산에 대한 통계개발은 매우 필요하다.

연구방법으로 먼저 LWS(the Luxembourg Wealth Study)¹⁾에 참여하고 있

1) LWS(<http://www.lisproject.org/lws.htm>)는 2002년 8월 IARIW(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의 제27차 General conference에서 5개국 부(wealth)의 불평등 추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부에 대한 비교가 소득에 대한 비교보다 어려움을 알고 2003년

는 국가²⁾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가계자산 조사방법, 자산에 대한 정의 및 발표하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검토한다.

두 번째로 자산(asset) 또는 부(wealth)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조사방법에 있어서 횡단면조사와 panel조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 그리고 모집단, 표본 규모, 표본추출방법, 조사방법, 조사단위, 무응답처리기법, 승수적용방법, 자료의 공표정도 등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세 번째로 자산에 대한 조사는 응답자가 대개 축소 응답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대체하거나 조사결과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로서 우리나라의 행정자료가 어느 정도 이용가능한지에 대해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위 연구들을 기초로 조사할 내용, 조사방법, 조사의 집계 및 발표 등 우리나라 가계자산 통계의 개발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7월 룩셈부르크에서 LWS의 첫 회의가 소집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기존 자료로부터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셀의 구축 가능성, 가구 순자산에 대한 미시자료 생산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캔버라 핸드북과 유사한 자료 생산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차 회의와 제3차 회의가 2004년 3월 및 2005년 1월 개최되었으며 2006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2) LWS에는 미국, 캐나다, 핀란드, 이태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독일, 키프러스 9개국 10개 기관(미국 2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제 2 장 국가별 가계자산 조사방법³⁾

가계의 자산 또는 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횡단면조사와 panel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SCF), 캐나다, 키프러스 및 뉴질랜드와 스페인은 횡단면 조사이며, 영국, 독일, 미국(PSID)은 panel조사 방법⁴⁾을 이용하고 있다. 그밖에 방법으로 이태리는 횡단면조사와 패널조사가 합성된 조사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호주는 국민대차대조표의 가구부문 순자산(net worth)을 기존 통계들을 활용하여 가구특성별 자산분포에 대한 실험적 추계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가계 자산에 대한 전문조사는 없고 횡단면조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관련 조사와 패널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계획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과 국민연금패널조사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의 가계자산조사방법과 비교할 때 국민연금패널이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3) LWS 참여국가중 핀란드와 스웨덴의 wealth survey에 대한 영문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를 못했다.

4) 3개국 외에도 부(wealth) 또는 자산(asset)항목이 포함된 각 나라별로 다음과 같은 panel조사들이 있다.(참조:<http://psidonline.isr.umich.edu/Guide/PanelStudies.aspx>)

국 가	조 사 명
호 주	General Customer Survey
뉴 질 란 드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mployment
벨 기 에	Belgian Socio-economic Panel(SEP)
프 랑 스	French Household Panel
헝 가 리	Hungarian Household Panel
인도네시아	Indonesia Family Life Survey
일 본	Japan Panel Study on Consumer(JPSC)
멕 시 코	Mexican Family Life Survey(MxFLS)
네 델 란 드	Dutch Socio-Economic Panel(ISEP)
스 웨 덴	The Swedish Panel Study market and Nonmarket Activities(HUS)
미 국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제 1 절 횡단면 표본조사 국가

1. 미국(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SCF는 최초로 1963년 실시하였으나 1965년 자료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가 1983년 다시 시작하였고⁵⁾ 지금과 같은 형태의 조사는 1989년부터 시작하였다. 그 후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까지 6회 가계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국세청 소득통계과의 협조와 여러 기관들의 자금지원으로 FRB가 주관하며 조사는 1992년부터 시카고대학교 NORC(the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대행하고 있다.

표본⁶⁾은 다양한 재정적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dual-frame sample design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전국 지역확률표본과 세금신고서 파일로부터 list 표본의 2가지 종류 표본을 조사에 사용하였다. 1998년 조사에서 전국 지역확률표본의 경우 1990년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표준다단계지역확률표본 선정절차를 거쳐 동일한 확률을 가진 가구단위 표본을 선정하였다. 자산은 원래 소유가 일부에 편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확률표본으로 이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 수가 많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list 표본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

list 표본은 국세청 소득통계과의 동의하에 조사년도 이전 2개 년도에 대한 세금신고서 파일로부터 추출한다. 세금신고서 파일 자체도 세금 신고서 전수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은 지역의 표본 선정률이 매우 높아서 표본 추출에 이런 세금신고서 표본 파일의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납세자의 개인비밀보호를 위해 강한 제약이 있다.

세금신고서 파일의 소득정보를 이용하여 wealth index를 계산하는데, 이 index는 소득 flow의 자본화와 대략 일치한다. wealth index는 총화된 표본

5) 1986년에는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6) Forbes 잡지에서 선정한 400명의 미국 부자는 표본에서 제외한다.

에 대해 납세자들을 순위 매김 하는데 적합한 도구로 더 높은 수준의 index와 일치하는 층으로부터 누진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표본을 추출한다.

wealth index로 1989년부터 WINDEX0it를⁷⁾ 사용하였으나, index 사용에 이용하는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세금 신고서에 기입할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주주택과 같은 자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WINDEX1it 모델⁸⁾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험결과 WINDEX1 모델만 이용하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1995년 조사부터 2가지 종류의 지수를 결합한 WINDEXM을 wealth index로 이용하고 있다. WINDEXM은 WINDEX0과 WINDEX1의 표준화된 값의 단순평균이다.

list 표본의 문제점은 세금신고는 개인별로 하지만 SCF의 모집단은 가족(family)이기 때문에 부부가 별개로 소득 신고를 하거나 동거하는 경우, 여러 명의 가구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표본선정단계에서 조정을 실시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 중에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the weighting design에 이들 문제점들을 고려한다. 그 밖에 조사비용 때문에 list 표본의 지리적 분포는 지역확률표본 지역으로 제한하지만 부유층 가구의 인구밀도와 전가구의 인구밀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런 제한으로 1995년 이전에 Palm Beach와 Florida가 제외된 경우가 있다.

1995년부터 조사에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75분(중간 값)정도였지만 다소 매우 복잡한 조사는 3시간이상 걸렸다. 1998년 완전히 응답한 가구⁹⁾는 지역확률표본의 경우 2,813가구이며 list 표본의 경우 1,496가구로 응답률은 지역확률표본의 경우 65.9%였으며, list 표본의 전체 응답률은 28.6%였다. 그러나

7) $WINDEX0_{it} = \sum_j \frac{y_{ijt}}{r_{jt}}$, t시점에 I의 모든 자산 A_{ijt} 는 소득 y_{ijt} 를 낳는 수익률 r_{jt} 를 가진다.

8) $WINDEX1_{it} = \Gamma[p(X_{it}, Y_{it})'Y_{it}, X_{it}, Y_{it}]$, X_{it} 와 Y_{it} 는 WINDEX0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보고하지 않은 소득, 누락된 가구 구성원, 기타 개념적 및 실제 불완전성을 모델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적합한 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서 대리변수로 조사 자료와 세금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9) 1998년 총모집단 family는 102.6백만 family이고 2001년은 106.5백만 family 이다.

list 표본은 부자일수록 응답률이 더 낮아져 최고 부자층은 8.3%였다. list 표본의 경우 조사를 설명하는 자료를 사전에 보내며 이때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회신할 엽서를 동봉한다. 1998년 list 표본의 13.5%가 회신엽서를 보내왔는데 1989년 38.1%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이는 junk mail의 증가로 응답자가 설명 자료를 읽지 않고 무시한데 기인한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2001년 조사에서는 다양한 응답자로 분장한 전문 배우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실제 조사환경을 훈련과정에서 체험하게 하며 자산관리원으로부터 잠긴 건물이나 문이 닫힌 공동체 출입 허락을 얻기 위해 비디오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조사현장에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원의 노력을 추적하는 software를 사용하고 있다. 조사는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전화조사도 가능하였다.

조사표의 구성을 보면 가족관계, 금융기관 이용 및 태도, 신용카드 이용 및 태도, 거주 주택 및 신용, 부동산 및 다른 사람에 대한 대출, 기업, 자동차, 학자금대부, 기타대부, 저축 및 투자에 대한 태도, 금융자산, 직업과 연금, 소득, 세금 및 지원, 상속 및 기부, 인구통계, 보건 및 경제적으로 독립한 가구원,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원 평가의 1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관계부문은 응답자 및 응답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성별, 결혼여부, 생년월일, 재정적 독립여부를 조사한다. 금융기관 이용 및 태도부문은 향후 5년 동안 미국 경제가 과거 5년에 비해 더 좋아질지, 동일할지, 더 나빠질지 의견에 대한 질문, 5년간 이자율이 오늘보다 더 올라갈지, 낮아질지, 동일할지에 대한 질문, 대출관련 의사결정 때 이용하는 정보, 금전관리에 컴퓨터의 이용여부, 거래하는 금융기관 수, 이름 및 종류, 금융기관과 가족들의 주요거래 내용, 집 또는 직장으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현금인출기까지의 거리, 직불카드 사용여부, 월급 등의 자동이체 여부, 임대료 등 타 계좌로의 자동인출 여부, 스마트카드의 이용여부를 조사한다.

신용카드 이용 및 태도부문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구매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여행경비, 소득이 감소했을 때 생활비, 모피코트나 보석 구입, 자동차 구입 및 교육경비를 위한 대출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의

건, 지난 5년 동안 대출신청 및 승낙여부, 나중에 재신청하여 나머지 대출금을 받았는지 여부, 가장 최근에 발생한 대출금 삭감 이유, 대출금 신청 방법, 최근 5년 내에 대출신청하려는 생각을 신청 대출금이 삭감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변경한 경험, 신용카드나 지불카드 등의 소유여부, 카드종류별 소유 개수, 현재 결제해야 될 신용카드액, 최대 이용가능 금액, 신용카드 지불 이자율, 신용카드와 관련된 금융기관, 매월 신용카드 대금의 상환여부, 가게 외 상장부 소유여부 및 외상액을 조사한다.

거주주택 및 신용부문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임대하거나 임차 한 것을 포함한 총 땅 면적, 주거지에서 농장이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와 그 비율,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지, 받고 있는 임대료 주기, 임차료 지불 여부, 임차료 및 지불주기, 가족 소유비율, 땅과 건물을 포함해서 현재 판매가격, 처음 구입연월, 처음 구입비용, 현재 집의 25마일 이내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여부, 현재부터 2년내 현재 주거지에 계속 거주할 확률, 부동산세액 및 납부주기, 모기지나 토지담보대출여부, 모기지의 종류, 모기지 대출 연월, 대출이유,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액, 상환주기, 상환액에 재산세 및 보험료 포함 여부, 정기적으로 상환할 것인지 또는 만기에 일괄 상환할 예정인지, 얼마나 일괄 상환할 것인지, 예정보다 일찍 상환할지, 예정대로 또는 예정보다 늦게 상환할지, 완전 상환 예정 연도, 연 대출이자율, 대출기관명, 대출기관 선택 이유, 이자율의 변동 가능 여부, 다른 이자율과의 연관성 여부, 이자율 변동 주기, 이자율이 변동했을 때 월 상환액의 변동 여부, 가장 높았던 이자율, 처음 대출시 이자율, 고정이자율로 변동 가능 여부, 주거 자산에 대한 다른 대출 여부 및 대출 목적, 주거 자산에 대해 개보수여부 및 비용을 조사한다.

부동산 및 다른 사람에 대한 대출부문은 구매자에게 빌려주기 위해 부동산을 판 경험, 여전히 구매자가 빚지고 있는지 여부, 이런 대출의 개수, 담보의 종류, 대출 연월, 대출금액, 아직 미상환 받은 금액, 상환금액, 상환주기, 상환연도, 정기 상환 또는 만기 상환, 대부를 위해 빌린 부채여부 및 미상환

금액, 구매자가 담보제공한 부동산에 다른 대출의 존재 여부, 다른 부동산의 소유여부, 이들 부동산에 기업소유의 포함여부, 기업소유가 아닌 가족소유 부동산의 개수 및 형태, 다른 사람과의 소유권 공동 소유 여부 및 지분율, 부동산의 총 가치, 처음 구입 연월, 처음 구입비용, 현재 부동산 담보 대출 여부, 대출 연월, 대출금액, 미상환액, 대출기간, 상환액, 상환주기, 재산세와 보험의 포함여부, 정기 상환 또는 만기 상환, 예정보다 일찍 상환할지, 예정대로 또는 예정보다 늦게 상환할지, 현재 이자율, 변동이자율 여부, 대출기관명, 2000년 부동산으로부터의 총소득액을 조사한다,

기업부문은 농장을 포함한 소유기업의 개수, 처음 기업의 소유방법, 소유연도, 고용인 수, 가족 중 실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 기업의 종류, 기업 대출을 위해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서고 있는지 여부, 담보 제공액, 기업이 응답자가족에게 빚이 있는지 여부 및 금액, 응답자 가족이 기업에 빚이 있는지 여부 및 금액, 기업의 지분율, 기업지분의 순 가치, 지분 매도에 따른 세금 등의 비용, 2000년도 기업의 총매출액, 2000년 기업의 세전 총순소득, 응답자가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기업의 소유여부, 개수, 가치, 매매비용 및 2000년 총순소득을 조사한다.

자동차부문은 기업이 제공한 자동차의 소유여부 및 차량 대수, 기업이 이들 차량을 리스 했는지 여부, 응답자가족의 자동차 리스여부, 대수 및 차량의 연식, 회사, 모델명, 리스 지불료 및 지불주기, 리스기간, 소유자동차 대수, 종류, 모델명, 연식, 회사, 처음 구입했을 때 신차 또는 중고품, 자동차 할부금의 존재여부, 할부시작 연월, 할부금액, 할부금 상환방법, 월 할부금 상환기간, 상환한 금액, 상환주기, 이자율, 예정보다 일찍 상환할지, 예정대로 또는 예정보다 늦게 상환할지, 대출기관을 조사한다.

학자금 대출부문은 대출건수, 대출연월, 대출금액, 현재 상환여부, 상환시작 연월, 상환방법, 상환기간, 상환방법, 상환주기, 이자율, 예정보다 일찍 상환할지, 예정대로 또는 예정보다 늦게 상환할지, 대출기관, 미상환금액을 조사한다.

기타대출부문은 기타차입의 여부, 차입건수, 차입목적, 차입연월, 차입금액, 상환방법, 상환기간, 상환액, 상환주기, 예정보다 일찍 상환할지, 예정대로 또는 예정보다 늦게 상환할지, 차입이자율, 대출기관명, 작년도 총 대출에 대해 상환예정대로 했는지 또는 때때로 늦어졌는지, 2달 이상 늦었는지, 파산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와 가장 최근 언제 했는지를 조사한다.

저축 및 투자에 대한 태도부문은 저축의 주목적,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지출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경비, 교육, 의료 등 책임지고 있는 주요 경비 항목 및 이들에 대비한 저축 여부, 투자위험에 대한 수용태도, 저축습관, 은퇴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지출의 소득 초과 여부, 지출에 주택이나 차량구입 또는 투자의 포함여부, 주택이나 차량에 대한 매월상환액을 포함한 지출의 소득초과 여부, 부족한 지출액의 충당방법,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저축해야 되는 금액, 다른 사람에 비해 금전적으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자산가치가 증가할 때 더 많이 소비하는지, 긴급할 때 3천\$ 이상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를 조사한다.

금융자산부문은 당좌예금계정의 소유여부, 개수, 관련 금융기관명, 저축액 및 소유주, 주요 저축계정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한 이유, 거래기간, 당좌계정이 없는 경우 이유, 은퇴계정 IRAs나 Keogh의 소유여부, 소유개수, 종류, 거래 금융기관명, 총 금액, 은퇴계정의 투자방법, 기타 계정의 소유여부, 금융기관의 CD 또는 예금증서 소유 여부, 개수, 총금액, 관련 금융기관명 및 소유주, 기타 저축계정의 소유여부, 뮤추얼펀드의 소유여부, 종류, 건수, 시장금액, 관련 금융기관명, 투자로부터 이득 또는 손실 여부 및 비율, 정부저축채권의 소유여부, 표면가치, 기타회사,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발행 채권 소유 여부, 상장주식 소유여부, 소유주식의 회사 수, 주식의 총 시장가치, 보유 주식 중 직장관련 보유 주식여부, 해외기업주식의 보유 여부, 주식이나 기타 증권의 매매를 위한 위탁계정의 소유 여부, 연금으로부터 소득여부, 2000년 소득액, 배당금을 받는 연금의 소유여부, 이들 연금의 총액, 신탁이나 관리되는 투자계정으로부터 소득여부, 종류, 생명보험 가입여부, 생명보험에

대한 대출여부, 순 불입액, 사채사용여부, 실물자산의 보유여부를 조사한다.

직업과 연금부문은 지난 12달 동안 실업자이며 직업을 찾은 경험이 있는지, 현재 직업은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근무하는 직장이 만드는 것과 근로 장소, 직업의 공식적인 타이틀, 하고 있는 일, 주당 정기적으로 근로하는 시간,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근무주일, 세전임금, 임금주기, stock 옵션과 같은 재정적 옵션을 받은 경험, 회사 종업원수, 현재 직장근무년수, 향후 현재 직장 근무 기대년수, 노동조합가입여부, 산재보험가입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고용주가 운영하는 어떤 연금 가입여부, 개수 및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지,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 연금의 유무 및 개수, 형태, 가입기간, 고용주의 분담금 지불여부 및 지불비율, 응급시 인출가능 여부, 차입가능성, 대출여부, 대출금액, 차입목적, 상환금액, 상환주기, 현재 기여금 총액에 대한 대출비율, 총 불입액, 직장을 그만두면 이 연금액의 손실여부, 손실비율, 이 연금의 운용방법, 운용방법의 선택 가능성, 두 번째 직업의 소유여부, 종류, 주당 근무 시간, 유급휴가를 포함한 연간 근무주일, 세전소득, 임금주기, 응답자 직업들이 full-time인지 part-time인지, 18세 이후 full-time으로 근무한 연수, 1년 이상 full-time으로 근무한 직장의 개수, 3년 이상 full-time으로 근무한 직장의 개수, 가장 오래 근무한 직업의 종류 및 그 직장이 하는 일과 근로 장소, 직업의 공식타이틀, 응답자가 하던 일, 처음 근무 시작한 연도, 근무를 그만둔 연도, 그만두기 직전의 세전소득, 임금주기, 18세 이후 part-time으로 근무한 경험 및 연수, full-time으로 향후 직장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하는 연도, 그 후 part-time 근무 예상여부, 최종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하는 연도를 조사한다.

소득, 세금 및 지원부문은 가족전체의 2000년도 세전 근로소득, 사업소득, 비과세투자소득, 기타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의 이득 또는 손실, 임대소득, 실업급여, 아동수당, 별거수당, 장애수당, 노후연금, 기타보조금, 기타소득, 2000년 총소득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은지 적은지, 지난 5년 동안 소득이 물가보다 올랐는지 여부, 다음해 소득이 물가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

부, 다음해 소득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여부, 2000년에 아동수당 또는 별거수당을 지불했는지 여부 및 총 지불액, 2000년 친척이나 친구에게 재정적 지원을 했는지 여부, 금액 및 지원 대상, 2000년 연방정부소득세신고여부, 응답자와 배우자가 함께 신고했는지 여부, 소득세과일의 종류, 신고서에 공제부분을 항목화 했는지 그리고 2000년 세금신고서상 전체적으로 조정된 총소득액을 조사한다.

상속 및 기부부분은 유산이나 실물자산을 받아본 경험 및 회수, 형태, 받은 시점에 대략적인 가치, 받은 연도, 준 사람, 미래 유산이나 실물자산을 받을 것으로 예상여부 및 기대금액,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유산을 남기길 예정여부, 2000년 500\$이상 자선경험여부 및 자선금액, 자선단체에서 1시간 또는 1주 이상 봉사여부를 조사한다.

인구통계, 보건 및 경제적으로 자립한 가구원부분은 학력, 학위, 군대근무여부, 인종, 함께 살지 않는 자녀수, 함께 살지 않는 25세 이상 자녀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 살아있는 형제자매 수, 현재 배우자와 결혼한 연도, 이전 결혼 경험 여부, 처음 결혼한 나이, 부모의 생존여부 및 연령, 흡연여부, 현재 건강에 대한 의견, 기대수명, 정부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부터 수혜를 받는지 여부, 프로그램 종류, 가족 모두의 포함여부, 기타건강보험 가입여부, 제공자, 보험료 및 납부주기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낮은 응답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위 무응답으로 인하여 Current Population Survey와의 비교에서 연령분포 및 주거소유비율에서 조직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가중치지 않은 지역확률표본에서 조사결과는 주거소유에 대해 과소한 대표성을 보여 사후 가중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다. 지역확률표본의 경우 사후 층을 만드는데 이용할 변수와 wealth가 충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확률표본과 list 표본은 지역확률표본에 대한 확률가중치는 총 지리적 지역, 연령, 자가 소유상태에 대해 사후 층화하고, list 표본에 대한 확률가중치는 층별 total의 전국 추정치, 위치정보 및 금융소득의 규모를 사용하여 조정하는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사후 가중치를 만들어 결합하였다.

응답자가 어떤 조사항목에 대해 응답을 거부하거나 자산의 시장가격과 같은 정보를 잘 알지 못해서 항목 무응답이 발생한다. 항목 무응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답자가 정확히 모르는 경우 자산액을 예를 들어 500\$에서 1000\$ 사이와 같은 범위로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 항목 무응답을 imputation하는 방법으로 이 조사에서는 DKDOL, FRITZ 시스템 및 MI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산 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서 통계의 품질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자료처리과정별로 주의를 더 많이 요한다.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을 기록하도록 훈련받았고 조사가 완성된 이후에도 분류오류, 보고오류 등 자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복명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거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와 해결과정을 토대로 개발된 software가 잠재적인 문제들을 알려주는 데 사용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응답자의 대답이 제공된 범주 내에 없거나 조사원이 분류에 확신이 없는 경우 그 응답에 대해 표식을 해놓으면 coder들이 검토한다. 드물지 않게 coder들이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project staff들이 다시 검토하는데, 검토 결과 응답이 기존 code로 결정되거나 응답자의 응답이 타당하면 새로운 code를 만든다. 만일 제공된 정보가 요구되는 질문의 답이 아니거나 매우 모호하면 missing 처리한다. 작성된 통계들은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FRB의 flow fund계정, 부동산세 파일,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동차보유자료 등과도 비교한다.

자산조사는 표본으로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FRB, 국세청, 조사원간의 계약을 한다. 또한 자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micro data는 개인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조사들처럼 조정을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가구의 특성을 소득 6분위별¹⁰⁾, 순자산 5분위별¹¹⁾, 가구주 연

령별, 가구주 교육정도별, 가구주의 고용상태별, 응답자의 인종 및 민족별, 지역별, 주택소유여부별로 분류하여 소득, 순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대출, 대출부담(총부채상환/세전 총소득)에 대한 가구 특성별 구성비, 평균값 및 중앙값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그밖에 저축 및 저축동기, 실현되지 않은 자본 이득, 대출동기, 대출기관에 대한 통계도 발표하고 있다.

2. 캐나다(Survey of Financial Security)

1999년 캐나다의 조사¹²⁾는 자치령을 제외한 10개 주 모두에서 실시하였으며 군대나 노인요양시설, 인디언보호구역 등의 거주자만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의 98%를 대표한다. 조사기준시점은 조사시점과 동일한 1999년 5월에서 7월사이로 정하였다. 조사는 인구특성, 인종-문화적 특성, 교육, 현재고용 및 1998년 소득에 대해서는 15세 이상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융 및 비금융자산, 기업 지분, 부채에 대해서는 가족단위로 조사하였다.

표본은 2가지 출처에서 약 23,000주거지(dwellings)가 선정되었다. 지역틀로부터 도출된 주 표본은 약 21,000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표본은 노동력조사(the Labour Force Survey)의 표본틀로부터 층화다단계표본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 추출된 주거지들은 통계청이 이전에 실시한 노동력이나 금융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거지만 선정하였다. 나머지 약 2,000가구는 가구의 많은 비율이 고소득을 가진 지리적 지역으로부터 추출하였는데 소득 절삭점은 총 가족소득이 최소 200,000\$이거나 투자소득이 적어도 50,000\$이었다.

조사는 1999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표는 종이조사표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주거지에 2개 이상의 가족단위가 거주하고

10) 6분위는 20%이하, 20%~39.9%, 40%~59.9%, 60%~79.9%, 80%~89.9%, 90%~100%로 계급을 구분한다.

11) 5분위는 25%이하, 25%~49.9%, 50%~74.9%, 75%~89.9%, 90%~100%로 계급을 구분한다.

12) 1999년 조사가 캐나다에서 7번째 자산 및 부채조사이지만 6번째 조사가 1984년 시행된 이후 15년만의 조사이다.

있는 경우 각 가족단위별로 각각 조사하였다. 조사는 그 가족의 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응답도 대신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T1 세금신고서에서 소득정보를 통계청이 이용하는 것을 승인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은 조사하지 않고 행정자료를 이용하였다. 세금자료이용을 허락한 응답자는 약 85%였다. 조사결과 응답률은 주표본의 경우는 77.3%였고, 고소득표본의 응답률은 59.9%였으며 전체 응답률은 75.7%였다.

조사표의 구성을 보면 가족구성, 사회-문화적 정보, 활동제한, 교육, 1998년 노동력참가, 현재고용특징, 이전고용주연금제도, 연금제도수혜,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연금분리, 소득, 가구 간 이전, 행동과 태도, 자산(기본주거), 자산, 부채, 학생대부, 기업, 지출, 자동차리스, 생명보험, 연락의 21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 이중 사회-문화적 정보, 활동제한, 교육, 1998년 노동력참가, 현재고용특징, 이전고용주연금제도, 연금제도수혜,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연금분리, 소득의 9개 부문은 가족구성원 중 15세 이상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가족구성부문은 가족들의 이름, 출생연월일, 연령, 성별,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와 함께 생활한 개월 수를 조사한다. 그리고 1998년 1월 1일 이후 혈연, 결혼, 양자 또는 관습에 의해 연관된 사람과 함께 동거한 경험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동거했는지, 함께 동거한 사람과의 관계, 지금 함께 동거하지 않는 이유, 함께 동거하지 않게 되어 재정상황이 더 좋아졌는지 또는 나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사회-문화적정보부문은 시민권과 관련된 조사를 한다.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캐나다 시민권을 얻게 된 이유 및 귀화로 시민권을 얻은 경우 landed 이주자인지 그리고 몇 년도에 landed 이주자가 되었는지, 어린 시절 처음 집에서 배웠으며 아직도 의사전달이 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활동제한부문은 6개월 이상 장기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장애 때

문에 집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레저 활동이나 직장으로 오고가는데 제한을 받는지 조사한다.

교육부문은 지난 6개월 내에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지 이때 full-time학생이었는지 part-time 학생이었는지, 유치원을 제외하고 몇 년간 계속 학교에 다녔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고등교육에 입학했는지, 최고학벌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1998년 노동력참가부문은 1998년 몇 주간 취업했는지, 취업은 full-time(주당 30시간이상)이었는지 part-time이었는지, 1998년 몇 주간 취업하지 못했거나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조사한다.

현재고용특징부문은 현재 취업했는지, 취업은 했지만 일은 하지 않고 있는지, 직업이 1개 이상인지, 종사상지위가 무엇인지, 직장명, 직장의 산업분류, 응답자의 직업분류, 직장에서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이상인지, 응답자가 유급근로자인 경우 지금 직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시기, 노동조합 회원인지, 어떤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지,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명, 등록번호, 1998년 기여금, 참여기간은 얼마인지, 이 연금의 일부가 이전 배우자와 나누었거나 나눌 것인지를 조사한다.

이전고용주연금제도부문은 25세 이상만 응답한다, 캐나다 또는 퀘벡연금제도, RRSP, DPSP이외 다른 고용주연금제도에 과거 가입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몇 종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지, 가장 오래 가입한 연금제도로부터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연금제도를 탈퇴할 때 연금불입액은 어떻게 하였는지, 이 연금제도에 가입해 있을 때 다니던 직장명, 그 직장의 산업분류, 몇 년도에 그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그만 두기전 1년간 세전 총수입, 연금제도 가입기간, 이 연금의 일부가 이전 배우자와 나누었거나 나눌 것인지를 조사한다.

연금제도수혜부문도 25세 이상만 응답한다, 고용주연금제도로부터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받고 있는 연금 중 가장 큰 연금에 대해 이 연금이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수령액인지, 월 연금수령액이

얼마인지, 이 연금은 연동제인지, 언제 연금이 상승하는지, 얼마나 상승하는지 그리고 65세 이하 응답자에게는 이 연금제도가 bridge benefit를 제공하는지 조사 한다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연금분리 부문은 이혼이나 별거로 이전 배우자의 고용주연금제도의 일부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가족구성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미 받았는지 나중에 받을 것인지를 조사한다.

소득부문은 노동소득, 투자소득, 정부로부터 소득, 연금소득, 총소득, 소득세 및 기타세금으로 분류하여 조사하는데 응답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이 부문은 조사하지 않고 캐나다 또는 퀘벡 연금제도 기록이나 소득세자료를 사용한다. 1998년 노동소득에 대한 조사는 공제이전 팁이나 수수료를 포함한 임금소득액, 팁이나 수수료소득액, 농업부문자영업자 순소득, 비농업부문 자영업자 순소득을 조사한다. 투자소득은 이자소득, 과세배당금, 과세자본이득 및 임대소득 등 기타투자소득을 조사한다. 정부로부터의 소득은 아동수당(child tax benefits), 노년보증연금, 캐나다 또는 퀘벡 연금수령액, 고용보험수령액, 사회지원 및 지방정부 소득지원금, 산재보험수령액, 재화 및 서비스세와 Harmonized Sales세에서 1998년 받은 공제액, 지방세공제액, 군인연금과 수당, 훈련프로그램 지원비와 같이 정부로부터 받은 기타 소득을 조사한다. 연금소득은 은퇴연금, 퇴직노령연금으로부터의 연금소득, 만기된 RRSP로부터 연금소득이나 생명보험 등 기금으로부터 인출, 만기가 되지 않은 RRSP로부터 인출, 배우자와 아이 지원 또는 별거수당 소득, 장학금, 퇴직금 등 기타소득을 조사한다. 소득세 및 기타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합하여 1998년 총소득에 대한 소득세,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기여금을 조사한다.

가구 간 이전부문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으로부터 금융지원, 사실상의 선물 또는 돈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몇 번 받았는지 또는 가족에게 준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 간에 1998년에 돈을 꾸어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행동과 태도부문은 금융관리에 대해 조사한다. 즉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매월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1998년 대부나 임대료 등을 2달 이상 밀린 경험이 있는지, 1998년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팔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지, 1998년 전당포에 소유물을 잡히거나 관적이 있는지, 파산을 선언한 경험이 있는지, 현재 가구구성원 이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고 있는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RRSP에 적립금이 있는지, RRSP로부터 돈을 인출한 적이 있는지, 가계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500\$이상 또는 5,000\$이상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있을 때 자금을 각각 어디에서 조달하는지, 주택구입이나 다른 투자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1998년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지 여부, 부채수준이 안정적인지, 다음 2년 내에 재정상황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다.

기본주거 자산부문은 주거의 형태, 소유여부, 가구원이외 사람과 공동소유 여부 및 지분율, 소유원인이 상속인지 증여인지, 구입연도, 구입가격, 첫 번째 구입주택인지, 오늘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첫 번째 모기지에 지금 얼마나 대출금이 있는지, 원래 상환기간보다 모기지를 더 빠르게 상환하고 있는지, 모기지 대출이 거주주택구입이 아니라 다른 자산구입이나 투자를 위한 것인지, 거주주택에 대해 두 번째 모기지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대출금이 얼마인지, 대출 목적이 다른 자산 투자를 위한 것인지, 이 주거의 일부가 임대되었는지, 이자산은 농장인지, 어떤 형태의 농업에 이 자산이 사용되는지, 농장의 나머지와 주택부문의 가치를 분리하여 추정할 수 있는지, 오늘 주택부문만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조사한다.

기본주거를 제외한 기타자산부문은 가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은 제외하며 현재가격으로 조사한다. 현재가격이란 시장가격으로 오늘 해당자산을 판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조사내용은 캐나다 내에 있는 부동산과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형태와 매도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각 조사하며, 등록된 자동차, 트럭, 밴, 스포츠카의 소유대수, 제조회

사명, 모델명, 제조연도, 매도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소유하고 있는 기타 자동차, 선박, 비행기의 매도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한다.

금융자산 중 등록된 소득공제 저축제도인 RESPs, 주택소유저축, RRSPs, LIRAs, RRIFs, DPSPs¹³⁾의 총액을 각각 조사한다. 그리고 예금액, 적금, 저축채권, 무추일펀드와 기타투자펀드, 캐나다와 외국의 상장주식 및 외국주식의 비율, 꾸어준 돈, 캐나다와 해외 채권(사채), 국채, 비상장주식, 연금, 신탁, 정부나 외국 연금, 기타 투자나 금융자산을 각각 조사한다.

그 밖에 자산으로 수집품(우표, 동전 등)과 귀중품(골동품, 예술품, 보석 등), 저작권, 특허와 같은 기타자산의 금액을 조사한다. 그리고 주택 내 있는 내구재(전자제품, 가구 등)를 오늘 매매했을 때 매매가격은 16개의 가격범주 중 선택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부채는 가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는 제외하며 현재 부채 잔액을 조사한다. 캐나다 내와 해외 기본주거이외 부동산과 관련된 각각의 모기지, 자동차와 관련된 대출, 기타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관련된 대출, 전문 신용카드회사 뿐만 아니라 소매점 및 주유소 등의 미결제액, 할부금 미결제액, home equity 및 기타 신용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소득세, 재산세 미지급어음 등 기타 부채를 조사한다.

학생대부는 별도 부문으로 조사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학생대부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한 것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다른 가구 구성원이나 기타 개인에게 빌린 학자금 용자는 제외한다. 각 가족구성원이 여러 개의 학자금 용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합하여 1개의 건수로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학생대부 프로그램 중 이용한 대부 프로그램, 처음 대출받은 연도, 총 대출액, 대출 잔액, 현재 상환여부, 상환시작 연도, 이자율의 종류(고정, 변동), 이자율로 구성되어 있다.

13) RESPs: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 RRSPs: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LIRAs: Locked-in Retirement Accounts, RRIFs: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DPSPs: Deferred Profit Sharing Plans

기업부문은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전문 사무실이나 농장을 포함한 법인 및 비법인 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조사로 다른 부문에서 조사한 자산 및 부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조사내용은 기업의 종류(법인 또는 비법인, 공동소유 또는 단독소유), 기업에 대한 지분율, 기업을 시장에서 매매할 경우 부채를 제외한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지분액, 기업 전체자산의 장부가액(감가상각 제외), 총 부채액, 기업의 부채를 보증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이용한 경험, 처음 기업 설립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 기업형태, 농장인 경우 농장 내 주택을 순자산과 자산의 장부가액조사에 포함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주거와 관련된 지출부문은 각 조사항목의 지출여부 및 정규 상환액 및 상환주기를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모기지 지불, 1998년 만들어진 추가 또는 일괄 모기지 지불, 재산세, 관리비, 임대료, 보험료, 전기, 기타광열(기름, 가스, 나무 등), 수도, 자동차 등록 및 보험, 별거 또는 이혼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지불금, 보육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 임대부문은 자동차의 리스여부, 월 리스료, 리스 종료기간을 조사한다.

생명보험부문은 보험가입여부, 가입한 보험의 종류, 총 표면가치(즉 사망시 받을 보험금), 만일 종신보험인 경우 대출여부 및 미상환액, 오늘 만일 종신보험 해약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3~4년 후 다시 조사할 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조사원이 이 조사를 위해 조사가구와의 각 만년시점마다 날짜와 면담 시작 시간과 끝난 시간을 기입하며 접촉방법이 전화인지 방문인지 등을 기입한다.

조사결과 중 발견된 극단치들은 그 응답자에 대해 보고된 다른 정보들을 확인 검토하여 보고 또는 가공상 오류가 아니면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였다. 또한 조사표의 모든 주요부문에 대해 누락된 응답은 imputation하였다. imputation 방법은 예를 들어 조사된 모델명이나 생산연도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것처럼 가능하면 응답자가 제공한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deterministic imputation을 사용할 수 없

을 때는 대부분 hotdeck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많이 imputation을 실시한 항목은 주식, 채권, 기타금융자산이었고 비금융자산이나 부채의 imputation 비율은 오히려 낮았다.

전수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각 표본마다 부여한 승수(weight)를 무응답을 보완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본단위들의 집단 내에서 조정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외의 자료로부터 알려진 모집단 total과 모집단 추정치가 관련이 있도록 승수를 2차 조정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모집단 total이 캐나다 통계청 인구과의 다른 지역-연령-성별 집단의 인구수이다. 또한 승수는 지역별로 알려진 총수와 일치된 1인과 2인가구의 수를 보증하기 위해서 조정된다.

추정치의 신뢰성은 CV(coefficients of variation)값으로 판단하는데 이 조사에서 순자산의 추정치에 대한 CV값이 33%를 넘어서기 때문에 자료 이용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지역통계의 이용가능성을 제한한다. 또한 국민계정 자료와 정의 또는 범위 등이 일치하지 않아서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일부 순자산 요소 특히 금융자산과 소비자 부채가 과소 추정되었으며, 실질자산의 추정치는 금융자산의 추정치보다 품질이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조사된 자료는 응답자들의 자산 모두를 팔아 그들이 갖고 있는 부채 모두를 청산하고 남은 화폐액인 순자산의 개념으로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 당(family units)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때 순자산의 계산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의 가치는 계산에서 제외하였다¹⁴⁾. 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및 기업의 지분으로 구분하며, 금융자산은 RRSPs, RRIFs, RESPs, DPSPs 등의 연금, 저축, 주식, 채권 및 뮤추얼펀드, 기타금융자산으로 세분하고 비금융자산은 기본주거, 기타부동산, 자동차, 귀중품 및 가구내구재로 세분하여 발표하였다. 부채는 모기지과 신용카드부채, 신용부채,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기타대출 및 부채로 세분하여 발표하였다. 산출된 통계를 이용하여 캐나다

14)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과 관련된 가치의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중이다.

통계청은 순자산의 십 분위 분포 및 각 계층별 순자산 중앙값, 가족 당 세후 소득별 구성비 및 순자산 중앙값, 가족형태별(2인 이상가구와 1인 가구) 구성비, 순자산 중앙값, 1998년 세후 소득 중앙값 및 순자산 5분위별 가구형태별 분포, 가족의 주 소득을 버는 가구원의 연령별 순자산 중앙값, 가족 중 노동소득이 있는 가구원 인원별 비율 및 순자산 중앙값, 가족의 주 소득을 버는 가구원의 고용형태별 구성비, 순자산 중앙값 및 1998년 세후 소득의 중앙값, 가족의 주 소득을 버는 가구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 순자산 중앙값 및 순자산 비율, 가족의 주 소득을 버는 가구원의 직업별 구성비, 순자산 중앙값 및 1998년 세후 소득의 중앙값, 가족의 캐나다 이민여부 및 이민시기별 모든 가구, 주 소득을 버는 가구원 연령이 45세 이상, 이하별 가구 구성비 및 순자산 중앙값, 지역별 가구 구성비, 자가 주거 소유비율, 2만\$이하 소득 비율, 순자산 중앙값, 자산과 부채의 구성요소별 금액, 구성비, 중앙값 및 평균값, 주 소득을 버는 가구원 연령별 자가 주거 비율, 중앙값 및 모기지 비율, 주 소득을 버는 가구원 연령별 자산과 부채 구성요소별 비율, 가구형태별 자산 100\$당 부채액 및 0 또는 (-)자산 비율을 분석 발표한다.

3. 키프러스(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키프러스는 키프러스대학과 중앙은행이 1999년과 2002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는 미국의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의 조사표와 유사하며 pilot survey를 통해 사전에 검정하였다. 2002년 조사는 2002년 3월과 2003년 6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2001년 소득과 2002년 자산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조사표 작성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정도였다. 조사는 조사대상가구에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조사하는 형식이며, 조사표는 각 가구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가구원이 가능한 작성하도록 했다.

키프러스도 미국과 같이 부유층에 대해 추가조사대상가구를 선정하였는데 2002년 주표본에 대해서는 키프로스통계청(the Statistical Service of the

Republic of Cyprus)이 설정한 5개 지방 및 58개 통계지역을 기본표본단위(primary sampling units)로 표준지역확률다단계표본(standard area-probability multi-stage sampling)추출방법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였고, 부유층 즉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키프로스전기회사(the Electricity Authority of Cyprus)의 가구당 전기소비자료¹⁵⁾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전기소비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세금신고서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여러 조사를 통해 전기소비가 부(wealth)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본은 주표본에 대해서는 55%, 부유층 표본에 대해서는 20%이하(대략 10%)의 응답률을 가정하여 키프러스 26만가구중 1,49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696개의 가구로부터 조사를 완료하며, 부유층표본은 두달간 전기소비가 가장 많은 6만3천 가구의 대략 10%로 구성된 5,517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546가구로부터 조사를 완료하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조사결과 주표본에서 521가구, 부유층표본에서 376가구에서 조사가 완료되었다. 응답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표본에 대해서만 표본대체를 허락하였고 적당한 지역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표본과 부유층표본을 1개의 대표표본으로 결합하는데 순자산 추정에 부유층 표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당한 소득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무응답은 imputation기법으로 보충하였는데, 우선 imputation할 모든 변수를 확인하고, 각 변수의 무응답률이 5%이상이고 변수가 자료 분석에 필수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imputation을 실시하였는데, 대략 50개의 변수가 imputation되었으며 이들 변수 중 총소득변수가 가장 많았다.

4. 뉴질랜드(the Household Savings Survey)

뉴질랜드는 2001년 처음 가계자산에 대한 조사 the 2001 Household Savings Survey를 실시하였다. 조사목적은 뉴질랜드인의 순자산(net worth)

15) 전기소비자료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불완전하여 조사대상 가구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대체할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05년 조사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은퇴와 관련된 정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다. 실제로 이 조사는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은퇴위원회(the Retirement Commission)에서 후원하였고 조사결과는 은퇴소득정책과 관련하여 6년마다 전문가 그룹이 작성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작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뉴질랜드 통계청은 조사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2회¹⁶⁾ 작성 발표하였는데 조사목적, 부(wealth)의 개념, 자료의 사용, 표본 선정, 조사항목들의 포괄범위, 조사가격 등에 대한 기존연구 및 권고안과 외국의 사례 등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사 이전에 2번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8세 이상 뉴질랜드 남섬, 북섬 및 Waiheke섬의 상설개인주거지에 살고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뉴질랜드의 표본들은 19,102개의 PSU와 이들의 특성치들을 기준으로 분류한 120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사대상표본의 선정은 층화추출로 675개의 PSU를 선정하고, 선정된 각 PSU마다 대략 10~12개의 가구를 무작위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6,600가구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사원은 선정된 가구에 대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가구당 1사람을 무작위로 선정하며 만일 선정된 사람이 파트너가 있다면 그 파트너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couple은 자산을 공유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총 5,374가구가 응답하였는데 이중 2,982가구는 couple이 응답하였고, 2392가구는 개인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73%이다.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마오리 booster 표본 6,6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응답률은 82%였다. 마오리 booster 표본을 선정한 이유는 마오리그룹에 대한 추정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함되었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조사원은 CAI(Computer Assisted Interviewing)방

16) 1999년 "Preliminary Views Document for the Household Saving and Net Worth Survey"와 2000년 "SCOPING DOCUMENT for the Household Savings Survey"를 발표하였다.

식의 전자조사표(EQ)를 이용한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만 응답하여야 하며 partner에 대해서만 대리 응답할 수 있는데 약35%가 대리응답 하였고, 65%는 partner 두 명이 함께 조사에 응하였다. 조사표는 가구조사표와 개인조사표의 2가지 종류가 있다. 가구조사표는 가구 내 응답자를 선정하기 위해 가구원수, 응답자가 파트너가 있는지, 그리고 가구원 모두의 연령, 성별, 민족에 대해 조사한다. 개인조사표는 응답자로 선정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족, 아동, 노동력, 마오리자산, 신탁, 자산개요, 신용카드, 은행계정과 대부, 현금, 꾸어준 돈, 기타자산, 부채개요, 기타부채, 유산, 인구적 특성, 소득의 16개 필수부문과 관련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사한다.

가족부문은 응답자와 가구구성원들과의 관계, 가구에 아동이 있는 경우 그들의 연령과 그들의 경제적 독립여부를 조사한다. 아동부문은 현재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사람과의 부부관계 사이에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서 조사가구에서 살지 않는 아동의 수와 연령을 조사한다.

노동력부문은 파트너가 조사대상일 때 2사람 모두에 대해 각각 조사한다. 지난 주 경제활동상태(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취업자면 유급직업 수, 주직업의 근무시간, 고용상태, 직업, 산업에 대해 조사하며, 실업자는 실업기간 등에 대해 조사한다.

마오리자산은 마오리자산에 대한 지분액을 조사하는데 파트너가 조사대상일 때 2사람 모두에 대해 각각 조사한다. 신탁은 설정자를 대상으로 신탁의 수, 신탁자산의 형태, 신탁별 설정자에게 빚진 액수, 설정자가 신탁 내 자산에 빚진 액수 및 응답자가 신탁으로부터 수령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자산개요부문은 주택, 다른 주거자산, 기업, 농장(과수원, 포도밭 포함), 상업자산, 퇴직노령연금, 생명보험, 자동차, 귀중품, 주식 및 기타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농장은 농장의 수와 미상환 부채를 고려한 지분액을 조사한다. 기업은 매매할 수 있는 기업과 매매할 수 없는 기업이나 매매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응답자가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이 다르다.

매매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현재 시장가치를 조사하거나 이 가치를 모를 때는 3년간 순이익을 조사한다. 매매할 수 없는 기업은 순장부가치를 조사하거나 순장부가치를 모를 경우에는 자산, 부채, 은행계좌액을 조사한다. 기타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업자산(공장, 사무실, 상가), 해외상업자산, 소유주택, 주말주택, 임대주거자산, 기타주거자산, 해외주거자산, 공유주거자산은 자산의 수와 현재평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이들 각 자산에 대해서는 모기지나 설정되어 있는지, 모기지 액수, 모기지수, 투자나 사업에 사용된 비율, 모기지가 revolving credit인지 table mortgage인지를 조사한다.

퇴직노령연금은 고용주가 기여금을 부담하는 경우와 부담하지 않는 경우 2가지로 구분하여 퇴직노령연금의 수, 형태, 총금액, 기여금과 시점, 시작년도를 조사한다. 생명보험은 건수, 해약일자와 금액, 만기날짜와 금액을 조사한다. 신용카드나 상점카드는 카드의 수와 카드 각각의 신용액을 조사한다. 은행계정과 대출은 계정의 수 및 각 계정별 예금과 차입금, 특정보너스채권액,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는 건수, 대출액 및 사업에 사용된 비율을 조사한다.

금융자산은 주식, 관리하는 펀드 및 기타금융자산의 3가지로 분류하여 금액, 해외 직접 투자하는 비율, 출자액과 시점을 조사한다. 현금은 수중에 있는 현금으로 총액이 1000\$이상인 경우만 조사한다. 응답자가 꾸어준 돈도 총액이 1000\$이상인 경우만 조사한다.

자동차의 대수와 금액을 조사한다. 귀중품은 골동품, 예술품, 보석 등을 포함하며 이들의 총액이 1000\$이상이면 조사한다. 기타자산은 총액이 1000\$이상이면 자산의 수, 형태 및 가치를 조사한다.

부채개요부문은 응답자가 학생대부, 할부구매, 개인이나 기관에서의 대출이 있는지 조사한다. 학생대부는 파트너가 조사대상일 때 2사람 모두에 대해 조사하며 처음 대출받은 시점과 현재 미상환액을 조사한다. 할부구매는 할부구매품목의 할부총액을 조사한다.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서 빌린 대출은 총액이 1000\$이상인 경우만 총액을 조사한다. 기타부채는 총액이 1000\$이 넘는 경우에만 조사한다.

유산을 받은 경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처음 자산을 구입한 연도와 같이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조사대상일 때 2사람 모두에 대해 각각 조사한다.

인구적 특징은 파트너가 조사대상일 때 2사람 모두에 대해 각각 조사하는데 법적혼인상태, 중등학교 이수기간, post-school 학습에 full-time으로 보낸 기간, 최고학력, 뉴질랜드 출생이 아닌 경우 뉴질랜드로 이주해 온 연도를 조사한다.

소득부문은 지난 12달 동안 총소득에 대해 임금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파트너가 조사대상일 때 2사람 모두에 대해 각각 조사하고 뉴질랜드 정부연금 소득, 기타연금소득, 투자소득, 기타정규소득, 기타 1회성 또는 부정기 소득은 2사람이 함께 정보를 제공한다.

조사결과는 무응답 및 기준 모집단 추정치 연령별, 성별 및 마오리 인구수와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응답누락에 대해서는 모든 주요 조사항목 모두에 대해 응답자가 답변한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imputation하는 deterministic imputation방법을 사용하며 이 방법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hot deck방법을 사용한다. 조사내용의 타당성검증은 2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먼저 조사단계에서 조사항목별로 값의 범위가 사전에 전자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어 응답자의 응답이 이 값의 범위 밖에 있는 경우 입력단계에서 검토하도록 전산화 되어 있다. 조사 후에는 총 집계된 값이 뉴질랜드 내 다른 자료들과 비교된다. 예를 들어 인구적 특성은 2001년 센서스자료와 비교한다.

조사결과의 집계단계에서 응답자가 저축액이 다른 2개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개의 저축액을 합한 금액 1개의 계좌로 집계한다.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인 자산 및 부채는 지분율만큼만 집계하며, 응답자가 정확한 지분율을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정확한 값을 모른 경우 조사표가 제시하는 값에 대한 범주들 중 선택하는데 이 경우 응답자의 조사 값은 동일 범주 내 값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의 평균값으로 대체하며 이들 관측치가 10개가 되지 않

는 경우에는 그 범주의 중간 값을 이용한다.

발표된 자료들은 95%신뢰구간을 기준으로 추정치의 표본오차가 큰 경우에는 추정치에 모두 표시를 달아 놓았다. 예를 들어 *는 상대적 표본오차가 30~50%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자료이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는 상대적 표본오차가 50%이상으로 대개 실제로는 믿을 수 없는 자료임을 의미한다.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먼저 partner가 없는 개인과 partner가 있는 couple 각각에 대해서 인구특성별¹⁷⁾ 총인구와 순자산의 범주별 인구수와 순자산의 평균과 중앙값을 추정 발표하였다. 또한 partner가 없는 개인과 partner가 있는 couple 각각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 형태별 인구수 및 총액에 대한 자료와 이들 2가지 조사단위 각각의 인구특성별 자산과 부채 형태별 인구수와 중앙값을 각각 발표하였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들 자료들을 이용하여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을 partner가 없는 개인과 partner가 있는 couple 각각에 대해서 인구특성별로 발표하고 있다.

partner가 없는 개인과 partner가 있는 couple 각각의 인구특성별 주거용 자산¹⁸⁾의 가격대별 인구수와 소유자산을 담보로 한 모기지미상환액별 인구수를 발표한다. 그밖에 partner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¹⁹⁾ 연령별, 민족별, 노동력상태별 순자산액별 인구수와 각 partner의 민족별, 노동 상태별 couple의 순자산별 인구수를 발표한다.

5. 스페인(the Spanish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스페인은행은 2001년 가계자산을 처음 조사하기로 결정하여 2002년 10월부터 2003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음 조사의 기획단계에서 미국과 이태리의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조사표를 설계할 때 미국²⁰⁾, 이

17) 연령별, 민족별, 성별, 혼인상태별, 노동력상태별, 직업별, 최종학력별, 같이 거주하는 부양아동수별, 거주와 관계없이 모든 자녀의 수별, 주 소득원별, 총소득별

18)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용 등 모든 주거용 자산 포함

19) 1인당의 경우는 partner 공동으로 조사한 항목은 조사 값을 1/2씩 partner 각각에게 할당한다.

20) 미국과 달리 소비, 소득 및 다양한 종류의 wealth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표 마지막에 비내구재와 식료품에 대한 지출조사를 추가하였다.

태리, 네델란드의 조사표를 참조하였다. 조사표는 인구, 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부채, 기타부채, 금융자산, 연금제도 및 보험, 노동시장상황과 노동소득(전 가구구성원 대상), 전년도 비노동소득, 지불수단, 소비와 저축의 9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CAPI 조사방법을 택하였고 조사시간은 평균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표본은 미국²¹⁾과 같이 부유층에 대해서는 여분의 표본을 추출하는 (over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스페인은 부유세(wealth tax)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1999년 부유세²²⁾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세청은 비밀보호를 위해 통계청에도 개인의 세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스페인은행과 통계청의 지도에 따라 직접 표본을 선정하였고 가구별 가중치도 직접 계산하였다.

부유세를 기초로 부자층(stratum)을 8개의 구간으로 정의 하였으며 점진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oversampling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선정을 위해 통계청이 국세청에 모집단틀 the Continuous Municipal Census dated mid-2001를 보냈고 국세청은 주소로 정의된 가구를 단위로 부유세와 소득세 두 가지 정보를 기초로 3가지 변수들을 각 주소와 연결하여 표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3가지 변수는 먼저 가구 구성원 모두의 신고서를 합한 가구에 대한 총 과세대상 자산이고, 두 번째 변수는 소득세 과세대상자들에 대해 전국 과세소득분포에서 해당 가구가 어느 4분위에 속하는지 나타내는 변수이며, 마지막 변수는 가구의 1인당 소득에 대한 것이다.

표본추출은 거주자 10만명 이상인 지역과 10만명 미만인 소지역 및 Navarre와 Basque지역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거주자 10만명 이상인 지역은 8개 부자층 내에서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였다. 거주자 10만명 미만인 지역은 2단계 집락설계로 표본을 추출하였는데 우선 인구에 비례해서 PSU를 선정하고 PSU 내 가구선정은 PSU 내 부유세파일의 수에 따라 결정하였다. 국세청이 개인의 세금파일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Navarre와

21) 미국은 부유세가 없기 때문에 개인소득세파일에서 자산소득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wealth index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22) 1999년 스페인의 과세대상 자산은 10만4천유로 이상이었으며 대상자는 98만 명 약 70만 가구였다.

Basque지역은 지역의 크기에 따라 6개의 층으로 나누어 2단계 층화된 집락 설계를 하였다. 각 표본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4개의 대체표본이 제공되었으며 대체표본은 지정된 원래 표본가구에 대해서만 대체할 수 있었다.

19,901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나,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5,143가구이고 5,722가구가 조사를 거절하였으며 6,670가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2,366가구는 부적격가구였다. 5번 방문해도 조사대상가구에서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특히 부자일수록 연락하기 어려웠다. 조사거부도 부자일수록 높았다. 무응답을 줄이기 위해 스페인은행 당국자의 안내편지와 조사대행기관의 또 다른 편지 및 안내책자를 사전에 조사대상가구에 보내고 조사참가가구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조사의 시기도 여름 휴가철을 피해 가을에 시작하였다.

완성된 조사내용은 모두 조사대행기관의 supervisor가 비일관성을 점검하고, 모든 극단치를 확인하며, 항목무응답을 점검하기 위해 우선 검토하여 조사표의 약 67%를 전화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재확인하였다. 무응답가구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조정하였으며, 단위 무응답에 대해서는 미국 SCF에서 사용한 The SCF multiple imputation program을 사용하였다.

제 2 절 패널 표본조사 국가

1. 영국(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영국은 Essex대학의 사회경제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 Economic Research)에서 1991년부터 시작한 연간 영국가구패널조사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는 영국 개인 및 가구수준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1년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는 Great Britain 250개 지역으로부터 선정

한 5,500가구, 10,300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9년 Scotland와 Wales 지역 각각에 대해 1,500가구씩 추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Northern Ireland 지역에 대해 2,000가구를 추가하여 지역별 독자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에 대한 패널연구기반을 만들었다. 표본은 우편번호주소파일로부터 층화한 집락표본으로 이들 주소의 거주자 모두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가구로부터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할 때 그들을 추적하여 이들 가구의 성인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비슷하게 조사대상 가구에 합류한 새로운 구성원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한다. 16세 이상 가구원만을 조사대상으로 직접 인터뷰하였으나 1994년 이후 11~15세의 아동에 대해 the Youth 조사표를 자체식으로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 조사는 대략 45분이 소요되며, 추가로 단지 1명의 가구원에 대해서 간단한 가구수준의 조사를 실시한다.

핵심적인 조사내용은 가구구성, 주거조건, 거주자의 이동성, 교육 및 훈련, 보건 및 보건서비스의 이용, 노동시장행위, 사회-경제적 가치, 고용, 복지 및 연금으로부터의 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연간조사는 아니지만 변화된 정책과 연구주제로 새로이 추가된 부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예를 들어 고령화, 은퇴 및 삶의 질, 업무스트레스, 신문구독, 아동과 육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표는 가구명부, 가구조사표, 개인조사표, 자체식조사표, 대리조사표, 전화조사표, 아동용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과 부채, 고령화 등 추가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표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조사표에 조사항목만 추가한다. 추가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추가한 항목뿐만 아니라 매년 조사하는 항목 중 관련 항목까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자산과 부채의 경우는 1995년, 2000년, 2005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0년 조사의 경우 가구조사표 및 개인조사표 중 가구재정에 대한 조사의 매년 조사항목 중 관련항목과 가구재정조사에 추가조사항목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조사표의 매년 조사항목 중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되는 조사항목은 거주 주택의 소유여부, 소유주, 오늘 주택을 매도할 경

우 기대하는 가격, 모기지론이나 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하였는지 여부, 1999년 9월 1일 이전에 이 주거에 대한 대출 없이 완전한 소유자였는지 여부 및 어떤 방법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는지, 현금을 지불하고 완전한 소유주가 된 경우 구입금액 및 구입연도, 대출을 완전히 변제하고 완전한 소유주가 된 경우 주택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 처음 모기지론을 상환하기 시작한 연도, 현재 모기지론이나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1999년 9월 1일 이전에 모기지론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1999년 9월 1일 이후 추가적인 모기지론을 받았는지 여부, 금액 및 용도, 생명보험료 등이 포함된 모기지론에 대한 최근 월별 총상환액, 기타 상환액에 포함된 건물보험 등의 부대비용 종류, 임차인에게는 직장제공 주거인지 여부, 임차인의 이름, 임대인, 가구 등 비품의 구비 여부, 수도료 등을 포함한 최근 지불한 임대료, 임대료 지불주기, 임대료에 포함된 부대비용의 종류, 임대수당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최근 임대료 지불액, 전액 임대료를 환불받거나 임대수당 등을 수령한 가구에게는 만일 환불받지 않은 경우 임대료, 임차인이나 모기지론을 갖고 있는 가구에게는 지난 12달 동안 이런 종류의 지출에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경험했다면 지불하기 위해 돈을 빌렸는지 아니면 다른 지출을 줄였는지, 그리고 2개월 이상 연체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기본주거이외 영국 내 다른 주택, 별장, 빌딩, 해외 토지 또는 자산 및 기타 토지나 부동산의 소유 여부, 이들 자산의 현재 총 가치, 기본 주거를 포함해서 소유 자산 모두에 대한 대출 총액, 모기지론 제외한 할부나 대출에 대한 상환여부 및 이런 부채와 이자가 가구의 재정 상태에 부담여부, 주거의 적당한 난방, 집을 떠나 일주일간의 연간 휴가, 낡은 가구의 대체, 새 옷 구입, 적어도 2일마다 육류 섭취 및 적어도 1달에 1번 친구나 가족과 술한잔하고 있는지 또는 하고 싶지만 여유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이다.

개인조사표 중 가구재정에 대한 조사에서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되는 매년 조사항목은 기본주거에 같이 살고 있는 하숙인으로부터 임대소득, 다른 자산으로부터 임대소득, 지난 12달 동안 저축이나 투자로부터 배당이나 이자소득

의 수취금액,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지 여부, 한 달 평균 저축액, 저축목적, 저축주기, 저축기간, 사채상환여부 이다.

개인조사표 중 가구재정에 대한 조사에서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특별 조사항목은 신용카드의 소유여부, 적금, 채권, 신탁 및 주식 등 하고 있는 저축이나 투자의 종류, 현재까지 총 저축액, 저축계정의 공동소유 여부 및 만일 공동소유인 것과 혼자 소유인 것 둘 다 있는 경우 응답자만의 소유인 저축계정의 저축금액, 총 저축액에서 응답자의 소유 지분, 총 투자액, 투자계정의 공동소유 여부 및 만일 공동소유인 것과 혼자 소유인 것 둘 다 있는 경우 응답자만의 소유인 투자계정의 투자액, 총 투자액에서 응답자의 소유 지분, 모기지 및 주택관련 대출을 제외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채 종류 및 총액, 부채의 공동소유 여부, 응답자 명의로만 받은 대출액, 총 부채에서 응답자의 지분이다.

조사에서 만일 응답자가 정확히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조사항목의 금액에 대한 범주를 주어 선택하게 한다.

2. 독일(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SOEP)

DIW Berlin(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이 발표하는 독일의 SOEP는 주로 사회지표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학 및 정치학 변수들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미시 경제적 접근법에 따라 생활수준의 안정성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인, 가구 및 가족에 대한 대표적인 미시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1984년 처음 시작한 longitudinal 조사이다. 매년 인구와 인구통계, 교육, 훈련 및 자질, 노동시장과 직업의 동태성, 소득과 사회보장, 주거, 보건, 가구의 생산, 기본적인 적응(선호, 가치 등)과 삶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과 삶의 특정부분에 대한 만족 등은 기본적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매년 사회봉사, 사회 네트워크 등 특정주제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는데 자산의 경우는 1988년과 2002년 2회 조사되었다.

표본은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에서 G까지 7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는 A와 B 2가지 표본만을 사용하였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음 표와 같이 추가 표본들이 포함되었다. 이들 표본의 선정방법은 지역으로 집락 한 다단계 확률표본으로 조사대상 가구는 random-walk로 선정하였으며 표본 확률은 표본종류마다 다르다.

<표1> SOEP에 사용되는 표본종류

표본 종류	표 본 명	표본의 특성	표본 선정년도	조사대상 가구
A	Residents in the FRG West German Sample	가구주가 주요 외국노동자그룹 에 속하지 않는 가구	1984	4,528
B	Foreigners in the FRG	가구주의 국적이 터키,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인 가구	1984	1,393 (over- sample)
C	German Residents in the GDR	가구주가 동독시민이었던 가구	1990	2,179
D	Immigrants	가구원중 적어도 1명이 1984년 이후 독일로 이주한 가구	1994 1995	236 295
E	Refreshment	표본 A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정	1998	1,067
F	Innovation	표본 A 및 E와 유사한 방법으 로 선정 국적이 독일인 가구와 가구원 중 적어도 1명이상의 국적이 독 일인 아닌 가구로 구분 선정	2000	6,052
G	Oversampling of High Income	월 소득이 적어도 3,835유로이 상인 가구	2002	1,224

※FRG: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DR: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longitudinal 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가구가 독일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
우에는 추적 조사하며 2번 연속 누락되거나 조사를 거부해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는 자동
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새로 태어나거나 결혼 등으로 새로운 가구원

이 되는 경우, 16세가 되어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 등은 조사대상으로 포함되고 기존 가구로부터 혼인 등으로 새로운 가구가 만들어 진 경우에는 이들 신규가구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1984년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 표본 A와 B의 응답자가 12,245명이었으나 약 20년이 지난 2002년도에는 약 50%의 응답자를 유지하고 있다.

조사표는 개인조사표, 가구조사표, 전기(biography)조사표, 젊은이용 전기조사표 및 아동용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원은 조사대상 가구원 중 16세 이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인조사표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가구주를 상대로 가구조사표를 작성한다. 조사는 다른 가구원에 의한 대리응답을 금지한다. 전기조사표는 18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2000년부터 실시한 젊은이용 전기 조사표는 16세 또는 17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2003년부터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신생아용과 2~3세용 조사표가 구분되어 있다.

개인조사표는 기본적으로 현재생활상황, 직장, 2001년 활동상황, 2001년 소득, 보건 및 질병, 정치에 대한 관심, 시민권, 인구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자산, 개인의 개성 등 특정연도에만 조사되는 부문들이 있다. 또한 기본부문의 경우에도 조사항목에 매년 변동이 있다. 가구조사표는 주거실태 및 주거비용, 소득종류별 소득, 간호가 필요한 가구원과 관련된 내용 및 아동교육관련 조사를 포함한다. 전기조사표는 시민권 및 이민자는 이민 동기 등에 관련 사항, 15세까지 부모와 생활관계, 15세 이후 결혼, 직장 등 주요사건이 발생한 연령, 과거 및 미래 학업, 직업, 자녀수, 결혼경험 등을 조사한다. 2~3세용 조사표는 아이의 성향, 건강문제, 양육문제, 발달정도 등에 대해 조사한다.

자산과 부채는 2002년 조사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자영자산, 귀중품에 대해 실시한다. 부동산의 경우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 소유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현재 시장가격과 이와 관련된 대출금,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율을 조사한다. 저축, 채권, 주식, 투자

등의 금융자산은 2,500유로이상인 자산에 대해서만 총액과 공동소유 경우 지분율을 조사하며, 생명보험, 개인연금 등도 조사한다. 자영자산의 경우 대출금을 제외한 세전 현재가치에 대한 추정치와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율을 조사한다. 자동차를 제외한 금, 보석, 귀중품등의 유형자산은 2,500유로 이상인 자산에 대해서만 추정가치를 조사한다. 그리고 모기지론이나 기타 부동산 담보를 제외한 2,500유로 이상인 부채에 대해서만 현재 남은 부채를 조사한다.

3. 미국(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미시간대학교 사회연구소 조사연구센터(the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는 1968년부터 미국의 개인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패널조사 PSID를 시작하였다. 30년이 넘는 조사기간 동안 아이가 성인이 되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이나 응답자의 성장과정이 향후 소득, 직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다양한 연구주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였다. 또한 조사대상도 1968년 4,800가족에서 2001년 7,000가족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65,000명 이상의 개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대한 조사로 성장하였다.

PSID의 핵심 표본은 SRC라고 부르는 전국확률표본과 SEO라고 부르는 가구주가 60세 이하인 저소득 가족표본 2가지이다. 전화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는 컴퓨터를 이용한다. 1997년까지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것과 가족 내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 있다. 소득원천과 금액, 빈곤상태, 음식이나 주거형태의 공공지원, 기타재정문제(세금, 가족 내 이전 등), 가족구조 및 인구 측정, 노동시장, 가사시간, 주거, 지리적 이동, 사회-경제적 배경, 보건의 핵심 조사 주제로 조사 때마다 포함된다. 주거 및 이웃 특성, 성취동기, 양육, 직업훈련과 직업취득, 은퇴계획, 자산, 이민역사, 시간사용 등은 보충적인 주제로 특정연도에 따라 조사한다.

자산은 1984년, 1989년 1994년, 1999년, 2001년, 2003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자산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내용은 기본주거 이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보트, 이동주택 등을 포함한 자동차, 농장이나 기업, 고용연금에 대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 뮤추얼펀드 및 투자신탁, 개인연금, 저축, 보유 채권, 생명보험, 투자목적의 귀중품 등에 대해서 그것을 팔아 부채를 청산한 후 순가치를 조사한다. 또한 부채에 대해서는 주택모기지론,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학자금대출, 사채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조사한다. 2001년 이후 개인연금 저축금액 및 환불액, 기본주거의 매도 및 판매비용을 제외한 판매가격, 기본주거이외 부동산의 구입여부 및 구입액, 1989년 이후 기본 주거 이외 부동산의 판매여부 및 판매액, 2001년 이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1만\$이상의 추가 또는 수리 여부 및 금액, 농장이나 기업 투자액 및 지분 판매액, 주식, 뮤추얼펀드 등의 주식 구입여부 및 금액, 주식을 더 많이 팔았는지 아니면 더 많이 샀는지 여부 및 금액, 주식 판매여부 및 금액, 2001년 이후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자산이나 부채에 5,000\$이상의 변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 정도, 2001년 이후 함께 살게 된 가족이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자산이나 부채에 5,000\$이상의 변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 정도, 10,000\$이상의 선물이나 상속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당시 가치는 얼마정도 인지를 조사한다. 금액 조사에 있어서 응답자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거나 거절하는 경우 조사원은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표에 제시되어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다시 질문한다.

4. 한국(한국노동패널조사)

1998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올바른 노동정책의 수립과 실행 및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과 가구의 경제활동을 관찰하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에 대해 15세 이상 가구원 전부를 조사대상으

로 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가구에 대한 것과 가구원 각각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조사는 가구에 관한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1999년 2차 조사부터 포함되어 왔다.

가구용 조사에는 가구원의 인적사항, 변동가구원관련사항, 가족관계와 세대 간 경제적 자원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저축,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항목으로 구성되어 자세하지는 않지만 다른 가계자산조사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산에 대해서는 조사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조사하며 시세를 잘 모르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세를 여러 구간으로 분류하여 해당 구간을 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내용은 살고 있는 주택이외 다른 주택, 건물, 임야, 토지 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와 이들의 시가총액, 부동산 임대여부 및 임대보증금 총액, 살고 있는 주택이외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 및 임차보증금, 금융자산별(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사적으로 남에게 빌려준 돈) 소유여부 및 총액, 부채종류별(금융기관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사채, 임대보증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돈) 잔액과 월 평균 원리금상환금, 부채원인,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 가계가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한국(국민연금패널조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은 퇴직 전·후 생활수준의 변화과정을 파악함은 물론 퇴직준비상황, 연금이 저축과 근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연금 및 고령화관련 정책에 사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구 및 2004년 예비조사를 기초로 2005년 10월부터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약 5억원이다. 조사대상은 약 5,000가구, 10,000명으로 가구 내에서 50세 이상의 고령자와 그의 배우자로 배우자는 50세 미만이어

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지역은 제주도 등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표본은 표본틀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를 활용하여 지역, 연령, 소득활용유형 등을 기준으로 무작위 층화표본추출 하였다.

조사시점은 조사표상에 현재에 대한 기준은 2005년 8월 31일이며, 작년 한 해의 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조사표는 가구 질문지, 세대용 질문지, 개인용 질문지의 3가지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질문지는 조사대상 가구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배경질문지로 그 가구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내용은 가구원 인적사항표(성명,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령, 배우자 존재유무, 배우자동거유무, 배우자 비동거 사유, 학력)작성과 조사대상가구의 주거상황(주택형태, 주택의 소유여부, 주택의 현재가격 및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액), 조사대상가구의 지출액(전년도 월평균,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통통신비, 문화생활비, 보건의료비, 내구재구입비, 연간 자녀에 대한 교육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기타가구원²³⁾ 각각에 대한 연간소득(취업여부, 취업형태, 근로소득, 부업소득, 공적이전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조사한다.

세대용 질문지는 각 세대별 세대주와 배우자의 소득과 지출, 보유자산, 상속, 가족관계, 부모관련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만일 50대의 부부와 70대의 부모가 같은 가구에서 살고 있다면 세대용 질문지는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은 소득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의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근로소득과 사회보장급여는 세대주와 배우자 각각에 대해 작년 1년 동안의 임금소득, 농림어업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으로 세분하여 조사하며, 사회보장급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등의 제 수당 중 받았던 급여의 종류와 월 수령액, 수령개월 수, 연간 총 수령액을 조사한다. 또

23) 기타가구원이란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중 국민연금패널 조사대상자인 50세이상 가구원을 제외한 가구원을 의미한다.

한 개인연금, 종업원퇴직보험, 저축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적인 소득도 각 종류별로 연간 총액을 조사한다.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주식매매이익, 사채이자)과 부동산소득(주거 월세, 임대료, 부동산 매매이익, 권리금, 기타) 및 이전수입(현금과 현물을 모두 포함하며 지원한 사람이나 단체별 연간금액)은 부부합산으로 조사한다. 기타소득(보험금,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현금이나 현물, 경조금, 복권당첨금 등의 기타)과 저축종류별(예적금, 개인연금, 저축성보험 불입액, 주식형 적립펀드 납부금, 기타) 연간저축액과 저축동기도 부부합산으로 조사한다. 조사대상세대로부터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 사회단체 등을 지원한 이전지출도 지원받은 기관별 연간 총지원액을 조사한다.

보유자산은 부부합산으로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및 부채 잔액을 조사한다. 부동산자산은 거주주택의 자산 가치(또는 전월세보증금), 거주주택 이외 소유 또는 임차주택의 자산 가치(또는 전월세보증금), 소유 사업체의 자산 가치, 기타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조사한다. 금융자산은 예적금, 개인연금 불입액, 저축성보험 불입액, 주식형적립펀드납부금, 주식투자액, 유가증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기타금융자산 각각에 대해 총투자금액 또는 총 불입원금을 조사한다. 부동산, 금융자산 외에 승용차, 기계, 회원권, 귀금속, 예술품 등의 기타자산 총액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상속관계에 대해서는 상속 받은 경험 및 상속해준 사람별 받은 시점 및 상속 또는 증여 받을 당시의 금액에 대해 조사하며,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해준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유산 남기는 것에 대한 생각도 조사한다. 가족관계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혼인관계, 생존 자녀수, 조사대상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자녀, 어린손자녀의 유무 및 이들에 대한 양육여부(주당 시간, 월평균 양육으로 인한 소득,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이나 근로시간의 단축 경험여부) 및 부모님의 생존여부,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배우자동거여부, 조사대상자의 수발이나 간병유무(주당 시간, 봉양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이나 근로시간의 단축 경험여부)를 조사한다.

개인용 질문지는 50세 이상 가구원은 모두 조사대상으로 하는데 근로활동 유형에 따라 직장근로자용, 자영업자/무급종사자용, 미취업자용으로 구분되며, 조사대상가구원 모두에 대한 건강 및 은퇴조사가 추가된다. 취업자와 미취업자는 최근 2개월 동안 돈벌이가 되는 어떤 근로 및 소득활동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직장근로자용 조사의 내용은 근무 중인 업체의 산업분류, 조사대상자의 직업분류, 업체의 총종업원, 고용형태(직접고용, 호출근로, 용역 및 파견근로, 개인도급 및 위탁, 가내근로), 종사상지위, 근무시간형태, 현재 근무시작년도, 월평균소득을 조사한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현재 일자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 현재와 다른 일을 1년 이상 경험한 경우 그 일자리의 주된 산업분류, 응답자의 직업분류, 시작 및 그만둔 시점, 그만둔 이유, 최종 1년 기준 근로 개월 수, 최종 1년간의 월평균소득, 퇴직금이나 일시금 형태의 종업원퇴직보험금 수령유무 및 실수령액, 사용처를 조사한다. 현재 일자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방식 및 월평균납부액,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이유, 특수지역연금의 가입여부 및 월평균 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납부방식,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다. 현재 일자리의 퇴직금제도 및 정년제의 적용상황과 관련하여 퇴직시 퇴직금 수령가능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경험연도 및 금액, 사용처, 현재 퇴직시 수령가능 총 퇴직금액, 퇴직금담보대출잔액, 퇴직금의 향후 사용계획처, 정년제도 유무, 응답자에게 적용될 정년연령을 조사한다.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에게는 종사산업의 산업분류, 직업코드, 종업원 고용 유무, 전체종업원 수, 사업의 시작년도, 월평균소득을 조사한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현재 일자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 현재와 다른 일을 1년 이상 경험한 경우 그 일자리의 주된 산업분류, 응답자의 직업분류, 시작 및 그만둔 시점, 그만둔 이유, 최종 1년 기준 근로 개월 수, 최종 1년간의 월평균 소득, 퇴직금이나 일시금 형태의 종업원퇴직보험금 수령유무 및 실수령액, 사용처를 조사한다. 현재 일자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방식 및 월평균 납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이유, 건강보험의 가입여부,

납부방식 및 금액을 조사한다.

미취업자에게는 과거 1년 이상 근로 및 소득활동 경험여부, 마지막으로 그만둔 년도, 그만둔 년도가 과거 20년 이내이면 마지막 일자리에서 직장근로자였는지 또는 자영업자나 무급종사자였는지를 구분하여 위 마지막 일자에 대해 직장근로자와 자영자 및 무급종사자에게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최근 1개월 동안 구직활동 여부, 구직이유, 원하는 일자리, 취업형태, 기대소득을 조사한다.

건강과 은퇴에 대해서는 먼저 주어진 삶의 여건(주거, 이웃관계, 경제, 친구, 가족, 부부, 직업, 육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며, 질병이나 장애 유무와 발병 시기, 원인 등을 조사한다. 은퇴와 관련하여 현재 은퇴여부, 은퇴시기 또는 예정시기, 은퇴이유, 은퇴시기에 배우자의 경제활동유무, 자녀의 취업 또는 결혼유무, 은퇴를 결정할 때 각 은퇴요인들의 영향도, 은퇴 후 느끼는 은퇴의 나쁜 점과 좋은 점들에 대한 경험 정도, 은퇴전후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노후준비 및 노후보장 상태에 대해서는 지출과 저축시 고려되는 향후 기간, 본인의 주관적 기대수명, 공적연금의 예상되는 개정 방향, 매월 주관적 최소노후생활비와 적정노후생활비,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여부 및 최초가입시점, 보험료납부기간, 연금수급예상연령, 공적연금 수령여부, 급여종류, 보험료 납부기간, 최초 수급시작시점, 국민연금액과 기타 공적연금액에 대한 만족도, 민간금융기관에 개인연금 가입여부, 가입구좌 수 및 구좌별 가입유형, 총 납부기간, 월평균납부액, 개인연금 수령여부, 가입유형, 총 납부기간, 최초수급시작연령, 개인연금액에 대한 만족도, 과거 가입한 종업원퇴직보험을 연금형태로 받거나 받을 예정인지를 조사한다. 또한 노후준비를 위한 연간 기타 저축액, 생명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납부액을 조사한다.

제 3 절 기타국가

1. 이태리(Survey of Italian Household's Income and Wealth)

이태리은행(the Bank of Italy)은 2년마다 이태리 가구의 소득과 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최근 자료는 2003년 2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한 2002년 기준 조사 자료이다. 이태리은행은 1987년까지는 조사 때마다 표본을 선정하였지만, 1989년부터는 이전 조사응답 가구 중 일부를 포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2년 조사응답 가구는 8,011가구인데 조사응답 가구 중 패널가구의 비율이 약45%로 1987년부터 계속 조사대상 가구에 포함된 가구가 44가구 있다.

<표2> 조사연도별 조사응답 가구

첫 조사연도	조사연도							
	1987	1989	1991	1993	1995	1998	2000	2002
1987	8,027	1,206	350	173	126	85	61	44
1989		7,068	1,837	877	701	459	343	263
1991			6,001	2,420	1,752	1,169	832	613
1993				4,619	1,066	583	399	270
1995					4,490	373	245	177
1998						4,478	1,993	1,224
2000							4,128	1,014
2002								4,406
표본규모	8,027	8,274	8,188	8,089	8,135	7,147	8,001	8,011

표본추출은 344개 지역의 공식등록기록(registry office records)을 표본틀로 사용하였다. 비패널표본의 경우에는 지역과 인구규모별로 PSU를 나누어 4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모든 행정구역은 포함시키고 4만이하인 지역은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추출된 PSU내에서 조사대상가구는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패널표본²⁴⁾은 2000년 조사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행정구역

24) 세대 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패널가구의 자녀로 형성된 새로운 가구들도 조사하는데 2002년 조사에 이런 특성을 가진 가구가 42가구 있었다.

들 가운데서 선정하여 이들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적어도 2번 조사에 참여한 가구들은 모두 패널대상가구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패널가구는 이전에 조사대상가구였던 가구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결과 조사대상가구는 23,356가구였으나, 실제응답가구는 8,011가구(비패널 4,406가구, 패널가구 3,605가구)로 응답률은 34.3%(비패널가구 23.8%, 패널가구 74.5%)이고 60.7%가 응답거부 하였으며, 5%는 연락이 안 되었다. 소득, 부, 가구주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조사하기가 어려웠다.

조사는 CAPI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종이조사표도 사용하였다. 조사시간은 평균 54분이었고 응답자에게 사례품은 지급하지 않고, 조사목적과 자료가 이용되는 방법에 대한 안내책자를 지급하며 나중에 신문기사스크랩과 감사편지를 보냈다.

조사내용은 모든 가구와 관련이 있는 일반부문과 특정가구만 조사대상으로 하는 추가부문 및 부록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부문은 가구구성, 고용과 소득, 지불수단과 저축형태, 기본거주지와 기타자산, 비내구소비재와 내구소비재, 보험형태, 조사원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구성부문 및 고용과 소득부문은 가구원 각각에 대해 조사하며 나머지 부문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추가부문은 은행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출생년도가 짝수인가구만을, 세대 간 이전에 대해서는 홀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있다. 부록부문은 고용과 소득 부문 및 기본거주지와 기타자산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구성부문은 가구 구성원 전원에 대한 질문과 가구주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 구성원 전원에 대해서는 이름,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태어난 장소, 출생연도, 혼인상태, 1997년말 거주 지역, 학력, 전공분야. 출신대학, 학위년도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조사한다. 패널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패널가구에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새

25) 거주지가 변경된 패널가구들은 거주지가 이태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새 거주 지역에서 조사된다.

로운 구성원이 추가되거나 기존 구성원이 제외된 경우에 대한 이유와 연도 및 2001년 조사에서 구성원으로서 순위를 조사한다. 만일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여 떠난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와 그 구성원의 주소를 조사한다. 또한 이들 구성원의 변화로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조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현재 가구주와 배우자 나이일 때 학력, 직업 및 종사산업 및 조사대상가구와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부모의 출생연도, 생존여부, 부모 거주지까지 소요시간을 조사한다. 그리고 함께 살지 않는 형제, 자매 및 자녀의 수에 대해 조사한다.

고용과 소득부문은 직업, 실업자이거나 직업연금수급자인 경우 과거 직업, 고용인, 직업연금수급자 또는 실업자인 경우 일하고 있는 또는 일했던 직장의 산업분류, 2002년 구직활동여부(직장변경을 위한 활동 포함), 직업변경회수, 피고용인, 자영업자, 또는 피고용인과 지영업자 모두에 대한 경험 여부, 처음 일을 시작한 연령, 연금기여금의 불입여부 및 기간을 조사한다. 직업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은퇴연령, 은퇴이유, 퇴직연령에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오래 일하도록 퇴직연령을 연장할 경우 실익여부, 퇴직연령이전에 은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조사한다. 피고용인에 대해서는 현재 직업을 시작한 연령, 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험 여부 및 출근하지 못한 일수, 예정은퇴연령, 은퇴기대연령이 최소한 50세인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 그 기대연령에 은퇴하려는 이유, 더 늦게 은퇴하려면 필요한 조건, 공공연금이 은퇴 후 소득에서 차지할 비율, 은퇴 후 기간 동안 공공연금으로 개인 또는 가구의 필요가 충분히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공공연금이 없거나 공공연금으로 부족한 경우 은퇴 후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예상되는 활동을 조사한다.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는 2002년에 근로소득 입수여부, 2002년 자영업 종류별로 자영업소득의 입수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모든 가구원에 대해 2002년에 직업, 장애, 고령 등에 대한 개인보험으로부터 소득입수여부 및 실업수당, 경제적 지원, 장학금 등의 이전수입

여부를 조사한다.

지불수단과 저축형태 부문에서 지불수단으로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당좌계정, 은행저축통장, 우체국 당좌계정 및 우체국 저축통장의 개수와 보유 구성원 수, 당좌계정이나 저축통장을 거래하는 은행 수 및 은행이름, 주거래 은행명을 조사한다. 또한 가구가 가지고 있는 2002년 ATM카드의 수, 2002년 월평균 인출회수, 평균 인출액, 상점에서 직접 ATM카드로 지불해본 경험여부 및 평균 회수를 조사한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소유여부, 2002년 말 현재 신용카드의 수, 월평균 사용회수를 조사한다. 인출과 관련해서는 더 인출하기로 결정했을 때 집에 대개 가지고 있는 현금, ATM 카드를 이용한 인출을 제외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한 월 회수 및 인출 1회당 평균금액을 조사한다. 2002년 가구 전체 수입 중 현금, 은행당좌계정에 대한 직접신용, 우체국 우편환, 기타의 비중, 가구가 지출을 위해 가지고 있는 현금, 지출을 위해 매월 사용되는 현금을 조사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컴퓨터의 사용여부, 소유여부, 인터넷 사용여부, 인터넷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여부, 인터넷 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 이유, 인터넷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의 종류, 인터넷상 결제회수, 인터넷 결제시 결제수단을 조사하였다. 또한 phone banking이나 인터넷 banking의 사용여부, 종류 및 사용목적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불의 종류를 조사한다.

저축형태부문은 은행예금[당좌계정, 저축통장(무기명, 비무기명), 예금증서], 우체국 예금(당좌계정과 예금통장, 저축증서), 이태리정부증서(단기채, 증서, 장기채, 할인채, 기타), 채권과 이태리 뮤추얼펀드 지분[채권, 뮤추얼펀드(주식펀드, 채권펀드, balanced fund, 금리연동제펀드)], 이태리증권(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민영화기업, 합자회사), 신탁저축, 외국증서(채권과 정부유가증권, 주식, 기타), 법인에 대한 대출의 각 세부항목들에 대해서 과거에 소유한 경험이 있는지, 2002년 말 현재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모와 금액, 소유액, 2002년 판매여부를 조사한다.

자본이득과 관련하여 만일 2002년 정부증서나 채권, 주식, 뮤추얼펀드, 외

국증서 또는 개인관리하의 자산을 팔은 경우 매도손익과 원금, 구입시점을 조사한다. 또한 만일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도손익과 구입시점을 조사한다. 2002년 소유한 자산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금을 조사하며 만일 예기치 못한 사건이(예: 건강 등) 발생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을지 조사한다.

대출과 관련하여 2002년에 건물의 구입이나 재건축, 실물재화(보석 등), 자동차, 가구내구재, 비내구재의 구입이나 기타이유로 대출을 받은 적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각각 조사한다. 또한 2002년 말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받거나 지불할 금액이 얼마인지, 친척이나 친구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증의 종류가 무엇인지 조사한다. 2002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했는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거절됐는지, 거절된 경우 이유를 조사한다. 또한 대출신청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 만일 대출 신청한다면 거절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조사한다.

기본거주지와 기타자산부문은 현재 거주지에 살기 시작한 연도 및 소유여부를 조사한다. 거주지가 자가 또는 대물상환 받은 경우 유일한 소유주인지 또는 지분율, 취득연도, 가구구성원 중 누가 소유주인지, 주거지의 획득방법(개인으로부터 구입, 기업으로부터 구입, 공기업으로부터 구입, 유산, 일부구입과 일부유산, 증여, 직접건축, 다른 사람과 협력, 기타), 구입가격을 조사한다. 그리고 만일 자산 구입이나 수리를 위해 대출받은 경우 2002년 대출금 상환여부, 상환한 경우 이자와 상환액의 합계, 대출의 원리금, 대출기간, 대출이자의 종류(고정, 변동)와 이자율을 조사한다. 임대주거지인 경우 관리비와 난방비를 제외한 월 임대료, 계약방법, 임대주거지의 원소유자 종류(개인, 사기업, 연금기금, 정부, 기타공공단체, 기타), 희망 월임대료를 조사한다.

그밖에 모든 가구에 거주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시골, 도시변두리, 변두리와 도시 중심지 사이, 도시중심지, 기타, 촌락), 이 주거지가 위치한 지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평균이상, 이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기타), 이 주거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부유층, 평균이상, 중간, 보통, 저소득층, 매우저소득

층), 건평, 건축연도, 목욕탕 수, 난방시스템 보유여부, 이 주거지(주차장 등 포함)에 대한 조사가구의 추정가치를 조사한다.

기타자산에 대해서는 기타주거지, 기타건물이나 상점, 농업용 토지, 비농업용 토지의 소유여부를 조사하며, 2002년도 자산을 매매하거나 기증한 경우, 아직 소유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 미리 대금을 지불한 경우, 그리고 그 금액을 조사한다. 또한 자산의 확장, 수선 등의 외형유지수선비를 지불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기본주거지와 기타자산 각각에 대해 얼마나 소요했는지 금액을 조사한다.

비내구재와 내구소비재부문은 2002년 귀중품, 교통수단, 가구내구재의 구입여부 및 총금액, 2002년 귀중품과 교통수단의 매매여부 및 받은 금액, 2002년 말 현재 가구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귀중품, 교통수단, 가구내구재를 매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액, 그 가구에 살지 않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부양비 또는 기타 유사한 지불(예: 선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조사한다. 월평균 현금으로 지출하는 소비재구입액, 외식을 포함한 식료품 지출액, 가처분소득이 매월 소비를 만족시키는지 여부,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을 고용하는지와 주당 평균사용시간을 조사한다.

보험형태부문은 생명보험 가입건수, 가입한 가구구성원, 가입년도, 2002년 불입 보험료, 민간건강보험과 상해보험 가입건수, 2002년도 불입 보험료, 그리고 민간연금 및 저축성 보험의 가입여부, 가입건수, 가입한 가구구성원, 가입년도, 보험금 수령 예정연령, 2002년 불입보험료, 보험의 종류(개인, 그룹)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원은 응답시간 및 조사원이 응답자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내용은 응답자의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소득과 부에 대한 응답자 응답의 신뢰성, 조사 분위기, 유로화로 조사단위 응답에 대한 응답자의 능력, 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부문조사내용은 은행거래와 세대이전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은행거래는 주거은행과 거래기간, 거래이유, 은행까지 거리, 통장거래이외 이용하는

은행제공 서비스, 지난 2년 이내 새로이 은행계좌 개설여부, 개설이유, 2년 이내 계좌폐쇄여부, 폐쇄이유, 폐쇄비용, 당좌대월약정 보유여부, 당좌대월의 한도액 및 이자율, 저축이자율, 은행수표로 지불경험, 월평균 사용회수 및 연간 이용회수, 2002년 은행계좌를 통해 계속 발생하는 공과금 납부여부 및 해당 공과금, 2002년 은행계좌의 대체를 통한 지불경험 및 연간 횟수를 조사한다.

세대이전은 가구주와 배우자가 유산이나 귀중품을 선물로서 받은 경험여부, 받은 종류별(유산, 선물)로 받은 사람, 준사람, 받은 연도, 받은 연도 기준 평가액, 자손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산이나 귀중품을 선물로서 준 경험여부, 준 종류별(유산, 선물)로 준 사람, 받은 사람, 준 연도, 준 연도 기준 평가액, 미래 유산이나 귀중품을 받을 것으로 기대여부, 누구로부터 누구(가구주, 배우자)에게 현재가치로 얼마에 해당하는 것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추정치, 자녀수, 자손이나 다른 상속자에게 자산을 남겨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 남겨준다면 누구에게 현재 가치로 얼마나 남겨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조사한다.

고용과 소득부문에 대한 부록조사는 각 가구구성원을 6가지 직업(피고용인, 자유업자, 가족기업, 활동 중인 주주, 연금수급자, 기타소득자)으로 분류하여 각 구성원에 대해 조사한다. 피고용인에 대해서는 2002년 직장에서의 근무형태(full-time, part time), 계약방법, 근무기간, 직장의 정규직원수, 주당 평균근로시간, 특별 야근수당 수령여부, 2002년 주당 평균 유급 야근시간, 2002년 휴일의 이용정도, 연간 순소득, 주거를 제외하고 받은 기타 급부액을 조사한다. 전문직, 단독 사업주, 프리랜서, 임시노동자 등의 자유업자는 근무기간, 활동형태, 소유주를 포함한 노동자수, 2002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순소득, 가구 사용 목적을 제외한 업무상 사용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중장기 부채, 기업관전 투자에 대한 중장기 부채, 18개월 이내의 금융기관 단기 부채, 신용판매액, 대출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담보의 종류, 소유기업의 기계장비 및 기타자본재와 면허, 특허 등 자산의 시장가치, 기업을 판다면 부동산은 제외하고 기계장비 등을 포함하여 판매할 경우 기업의 가치, 2002

년 기업의 감가상각액을 조사한다. 가족기업은 가구원별 근무기간 및 평균 주당 근무시간, 소유주를 포함한 노동자수, 가구의 지분율, 지분율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가구의 2002년 순소득, 가구 사용 목적을 제외한 업무상 사용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중장기 부채, 기업관련 투자에 대한 중장기 부채, 18개월 이내의 금융기관 단기 부채, 신용판매액, 대출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담보의 종류, 기업을 판다면 부동산은 제외하고 기계장비 등을 포함하여 판매할 경우 기업의 가치, 2002년 기업의 감가상각액을 조사한다. 활동 중인 주주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노동자수, 기업의 법적 형태, 주당 평균 근로시간, 연간 보수액, 배당받은 이익금, 2002년 말 기업의 가치(지분율 기준)를 조사한다. 연금수급자는 연금지급기관 및 받은 연금액, 수령시작 연도, 매월 순 수령액, 수령기간, 정규적인 수령액 외의 받은 금액, 마지막 임금에 대한 처음 받은 연금액의 비율을 조사한다. 기타소득자는 받은 기타소득의 종류 및 금액을 조사한다.

기본 주거지 및 기타자산부문의 부록조사는 2002년 말 소유자산(기존 거주지를 제외한 주택, 기타 건물, 농업용 및 비농업용 토지)의 형태, 지분율, 소유주, 취득 년도, 면적, 건축연도, 사용현황, 가치평가액, 임대여부, 받은 임대료, 연간임대희망액, 취득방법, 위치를 조사한다. 또한 2002년에 팔거나 기증한 자산의 종류, 판매인지 기증인지 여부, 지분율, 면적, 판매 또는 기증시점 가치평가액, 임대여부 및 받은 임대료, 취득방법, 취득년도, 판매 또는 기증 당시 모기지 대출액을 조사한다.

조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무응답 가구들에 대해서는 같은 행정구역 내 무작위 추출한 다른 가구로 조사를 대체하였으며, 응답자의 어떤 개별 특성에 따라 조사한 가구들을 사후층화 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이 정확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적은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변수들을 조사하므로 조사원들이 응답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방법은 주택 형태, 살림살이의 품질정도 등 조사대상가구의 객관적인 증거와 조사대상 가구 응답의 일치성 정도를 1점(완전히 믿을 수 없음)에서 10점(완전히 믿을 수 있음)

까지로 평가 한다. 평가결과 모든 표본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신뢰수준이 평균적으로 만족스러웠다. 가장 신뢰수준이 높은 가구는 가구주의 학력이 높고 임금노동자이면서 이태리 중앙 또는 북쪽에 사는 가구이고 가장 낮은 가구는 중이하의 교육을 받은 자영업자로 남쪽이나 섬 지역에 사는 가구이다.

조사된 자료 중 종이종사표는 표준내검방법에 의해 내검을 실시한다. 내검이 완료되면 항목 무응답에 대한 imputation을 실시한다. imputation방법은 무응답한 조사항목과 상관관계가 있는 다른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한 회귀모델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평균값 주변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회귀모델 내 잔차의 분산과 같은 normal 변수에서 뽑은 임의요소가 추가되어 실제 측정된 자료의 평균과 분산은 유지한다.

조사결과의 추정치는 사용된 정의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민계정이나 세금신고 자료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1995년 조사결과에 대한 비교 연구결과 국민계정 추정치에 비해 조사결과 이자소득은 약 70%, 사업소득은 50%, 이 전소득은 30%, 임금소득은 20% 정도 낮으나 임대소득은 10%정도 높다. 주택의 가치는 약 20%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집이 조사에서 누락된데 기인한다. 금융자산은 조사에서 더 많이 누락되고 있는데 2002년 조사의 추정치가 금융계정의 해당항목보다 50%이상 적다.

발표한 통계들을 보면 가구주²⁶⁾의 성별, 연령별, 교육별, 산업별, 직업별, 가구규모별, 취업자수별, 마을규모별, 지리적 위치별 등의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다음의 통계자료들을 발표한다. 가구규모별, 가구소득별, 가구취업자수별, 가구의 소득종류별, 가구순자산별, 가구의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별, 월 은행수표 사용횟수별, 임차인의 주택형태별 상대적 비율을 발표한다. 보유부동산 종류, 유산 및 이전 관련, 지불수단종류, 신용카드 소유, ATM카드 소유,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2002년 말 보유한 금융자산종류, 보유했던 금융

26) 조사과정에서 가구주는 조사대상가구의 생활비에 대해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통계작성과정에서 가구주는 해당가구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자산종류, 예금 종류, 우체국 예금종류, 가입한 보험종류 각각에 대한 가구의 비중을 발표한다. 개인의 직업별 및 소득종류별 소득, 가구의 소득종류별, 가구의 부동산 및 기타부동산, 가구의 소비에 대한 평균 금액과 가구의 소득액, 지출액 및 자산액에 대한 중앙값을 발표한다. 또한 이태리은행은 조사내용을 가공하여 소비성향, 소득에 대한 순소득 비중,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equivalent 소득과 지출 및 이에 대한 빈곤지수, 거주주택의 가치, 귀속임료, 수익률, 소유주 소득 대비 귀속임료 비율, 임차 주택의 가치, 임대료, 소유주의 총 수익률, 임차인 소득대비 임대비율, 소득 십 분위별 가구의 비율 및 평균소득, 가구 십 분위별 소득비율 및 평균소득, 2000년과 2002년 가구의 소득분포비교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다.

2. 노르웨이(Income and Property Statistics for Household)

노르웨이 통계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자산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 통계작성목적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분포, 구성내역 및 평균 금액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처음 통계가 작성된 것은 1958년이지만 몇 번의 변경을 거쳐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자료와 최근자료를 비교할 수는 없다.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는 소득분포조사(The Income Distribution Survey)를 통해 수집하는데 이 조사는 조사년도 12월 31일 현재 거주인구를 모집단으로 하며, 시설거주자는 제외한다. 조사내용중 가구구성원에 대한 자료의 출처는 매년 변경되지만,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통계청이 가구인터뷰로부터 얻은 연간 대표적인 표본조사를 기초로 한다. 2002년의 경우에는 the EU-SILC와 the Household Panel of the Income Distribution Survey의 표본자료를 이용하였다. 소득과 자산자료는 주로 국세청의 개인세금신고서를 사용하며, 그밖에 The Central Population Register (혼인관계 등), Tax statistics for personal taxpayers(세금, 순소득 등), The Register for

End-of-the Year Certificates(실업수당), National Insurance Service(가족수당, 현금수당, 기본 및 보충수당),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사회복지), Statistics Norway's register of the population's highest level of education(고학력), State Educational Loan Fund(대부, 장학금, 부채), Norwegian State Housing Bank(주택수당)에 대한 행정자료를 사용한다.

소득분포조사의 표본은 1990년부터 소득관련 행정자료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표본규모가 사실상 증가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개인세금신고서에 등록된 모든 소득 자료를 종이형태에서 전자형태로 입수가 가능하게 되어 매년 표본가구가 증가하여 2002년 조사대상 표본가구 수는 22,870가구²⁷⁾였다.

조사된 자료들은 미시시뮬레이션모델인 LOTTE를 이용하여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자산통계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몇몇 변수에 대해 행정자료의 총액과 동일한 추정치를 만들기 위해 회귀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가중치를 만드는데, 이를 위해 calibration program을 이용한다.

발표한 통계들을 보면 가구특성별, 가구 내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원의 직업별, 연령별, 성별 가구당 세후소득, 금융자산, 총자산, 부채, 소득계정 및 자산계정에 대한 통계뿐만 아니라 1986년 기준을 100으로 계산한 지수 자료와 10분위 자료 및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와 자산과 부채 불평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가구특성을 독신, 자녀가 없는 부부, 자녀 나이가 0~6세인 부부, 자녀 나이가 7~19세인 부부, 자녀 나이가 0~19세인 편부모, 자녀가 성인인 가구, 다가족(Multi-family)가구로 구분한다. 직업은 고용주와 자영업자, 피고용인, 연금 및 보험수급자 및 기타비경제활동으로 구분하는데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기초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와 자영업자와 기타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세분된다. 연령별 구분은 25세 이하, 25~34세, 35~44세, 45~54세, 55~66세, 67~79세, 80세 이상으로 분류한다.

27) 2001년 노르웨이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노르웨이 인구는 4,485,945명이며 가구는 1,961,548가구이다.

총소득은 봉급, 자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분류되며 봉급은 임금과 순기업소득으로 자산소득은 수취배당금, 수취이자, 순 실현된 자본이득 및 기타자산소득으로, 이전소득은 과세이전소득과 비과세이전소득으로 세분한다. 임금은 현물급여를 포함하며 순기업소득은 감가상각과 결손공제 후 자영업에서 얻은 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비과세이전소득에는 장학금, 사회적지원 등이 포함된다. 세후소득은 총소득에서 세금과 이전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여기에 지불이자를 빼고 주택소득(housing income)을 합하여 세금과 이자지불 후 소득이라고 한다.

자본은 총 실물자본과 총 금융자본으로 분류되며 총 실물자본은 실물자본, 기타생산자본, 기타소비자본으로 총 금융자본은 은행적립금과 기타로 세분한다. 부채는 학생대부와 기타로 분류한다. 순 금융자본은 총 금융자본에서 부채를 제외한 개념이며 순자산은 총 실물자본과 순금융자본의 합이다. 그리고 자산은 순자산과 (-)순자산에 대한 수정의 합이다.

제 3 장 조사단계별 조사방법 비교

표본종류, 표본규모, 표본추출방법, 조사시간 및 조사도구, 응답률, 무응답 처리기법, 행정자료의 개인비밀보호방법, 조사결과의 정확성, 조사항목, 작성 통계 등 자산조사 및 관련통계의 작성 과정별로 가계자산조사 국가들의 방법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계자산통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알 수 있다.

먼저 표본종류를 비교해보면 횡단면표본을 사용하는 국가들과 패널표본을 사용하는 국가들로 분류할 수 있다. 패널표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경험한 변화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횡단면표본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만을 세울 수 있을 뿐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패널조사는 반복적인 조사로 인한 응답자의 부담, 표본 탈락에 따른 자료의 질 저하, 높은 조사비용, 자료처리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다.

패널표본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자산조사가 조사의 기본 목적이 아니라 가계 생활과 관련된 소득, 직업, 학력, 보건 등 여러 조사변수들 중 하나일 뿐 가계자산이 조사의 기본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자산에 대한 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부가조사의 형식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항목도 횡단면표본 조사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횡단면 표본을 사용하는 미국, 캐나다, 키프러스 등의 국가는 매년 조사하지는 않지만 가계자산을 조사의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산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협조가 다른 조사에 비해 낮기 때문에 표본 규모가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표본규모가 크지는 않다. 미국의 1998년 SCF의 총모집단은 102.6백만 family²⁸⁾이며 표본규모는 9,500family로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비율이 0.009%에 불과하다.

표본추출방법은 다른 가계조사처럼 다단계 지역확률표본을 사용한다. 그러

28) SCF는 모집단으로 1990년 센서스자료를 사용하였다.

나 자산은 원래 소유가 일부에 편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확률표본만으로 이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 수가 많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키프러스 등은 지역표본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유층에 대한 표본을 선정하고 있다. 부유층에 대한 표본선정방법은 국가별로 달라서 미국은 국세청 소득세 신고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고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을 별도로 표본으로 선정한다. 키프러스는 세금 신고서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두 달간의 전기소비량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유층에 대한 별도표본을 선정하고 있다.

국가별 조사시간을 비교해보면 예상보다 가구당 조사시간이 1시간이 넘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미국은 중앙값 기준으로 약 75분 소요되며 최대 3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키프러스는 평균 1시간 30분, 이탈리아는 평균 54분 소요하고 있다.

조사도구로는 오류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조사표보다 전자조사표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스페인 및 이탈리아는 CAPI를 이용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CAI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CAPI에는 DKDOL이라고 부르는 항목이 있다. 이는 금액조사를 하면 반드시 컴퓨터의 다음 화면에 조사원이 ○○○\$가 맞는지 응답자에게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응답률은 국가마다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부자 일수록 응답률이 매우 낮다는 공통된 특징을 나타낸다. 미국은 지역표본의 경우 65.9%, 부유층 표본의 경우 28.6%이고, 캐나다는 지역표본 77.3%, 부유층 표본 59.9%이며 뉴질랜드는 73% 이다. 그러나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25.8%와 34.3%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부유층을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최상위 부유층 표본의 응답률은 8.3%에 불과하다.

무응답은 가구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에 기인하는 단위 무응답과 조사과정에서 특정 항목이 조사되지 않은 항목 무응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위 무응답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은 사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스

페인과 이태리는 표본을 대체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사전에 가구 당 4개의 대체표본을 지정하지만 이태리는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로 표본을 대체하고 있다.

항목무응답의 경우에는 deterministic imputation, hotdeck 및 자체 추정기법의 3가지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deterministic imputation이란 예를 들어 조사된 모델명이나 생산연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것처럼 가능하면 응답자가 제공한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무응답을 대체하는 방법이다. 미국이나 이태리는 자체추정기법을 사용하여 무응답을 대체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은 표본 추출과정이나 조사과정에 세금신고서를 사용하고 있다. 원래 세금신고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자료로 자료 이용이 어렵다. 따라서 이 자료의 사용을 위해 개인비밀보호와 관련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초기 SCF 조사에 세금신고서를 이용하면서 관련 직원이 사표를 내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미국의 경우에는 세금신고서를 이용하여 선정한 부유층 표본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설명하는 자료와 조사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봉한 회신엽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국세청, FRB, 조사원 간에 사생활보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캐나다는 응답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조사를 세금신고서 자료로 대체할 때 사전에 응답자의 허락을 얻는다. 스페인은 표본자체를 조사주관 기관인 스페인 은행이나 통계전문기관인 스페인 통계청에서 선정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오히려 국세청에 주고 표본선정기법을 지도하여 국세청이 세금신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표본을 선정하고 승수를 계산하게 하여 개인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조사결과의 정확성 정도는 자산이란 변수의 특성상 과소응답 또는 누락이 많을 것이란 예상처럼 국민계정의 자료와 비교할 때 추정금액이 적다. 물론 국민계정에서 가계부문은 시설가계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등의 포함으로 가계에 대한 포괄범위가 더 넓다. 또한 자산의 종류도 가계 자산조사

보다 더 다양하여 직접적인 비교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캐나다의 경우 금융자산, 소비 및 부채는 국민계정에 비해 과소 추정되고 있으며, 실물자산의 추정치가 금융자산의 추정치보다 품질이 좋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이태리의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자소득은 70%, 사업소득은 50%, 이전소득은 30%, 주택가격추정치는 20%, 금융자산은 50% 국민계정에 비해 낮으며 임대소득은 10%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항목은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고용, 소득, 인구적 특성(연령, 학력, 가족관계 등), 금융기관의 이용실태 등에 대한 자세한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사항목은 대개 가구구성원 각각에 대한 것과 가구 전체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고용, 소득, 인구적 특성 등은 가구원별로 조사하며 자산, 부채, 이전 또는 상속 등의 조사항목은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가 대부분 금액조사로 만일 응답자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범위의 값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조사항목에서 비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과 기타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뿐 토지, 상점, 비거주 주택, 공장 등으로 세분하여 조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저축, 증권, 채권(국채, 공채, 회사채), 뮤추얼펀드(신탁), (퇴직)연금, 생명보험, 꾸어준 돈 등 종류별로 자세히 조사한다. 특히 조사에서 누락되기 쉬운 소유 사업체를 조사하는데 농장 등 농업부문도 사업체로서 조사하고 있다. 공동소유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지분율을 조사한다. 소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조사에 포함한다. 조사에서 금액은 현재 이 자산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채조사항목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사채 등 종류별로 처음 대출금액, 현재 대출 잔액, 상환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다. 내구재에 대한 조사는 항공기, 선박 등을 포함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사하지만 가구내구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단지 이태리와 캐나다만이 조사하는데 내구재 모두를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추정금액 정도만을 조사한다. 기타 골동품, 예술품, 특허, 귀금속 등의 귀중품도 개별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총액정도만을 조사하는데 이 경우 독일 등에서는 2,500유로 이상의 일정금액을 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발표하는 통계들을 살펴보면 많은 조사항목에 비해 발표하는 통계의 종류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순자산(net worth)에 대한 십 분위별 구성비 및 중앙값, 가구특성별 순자산, 순자산 항목별 구성비 및 중앙값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합으로 계산한다.

자산 분포의 편중 때문에 발표하는 통계단위들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값은 보조단위로 사용한다. 가구특성별 즉 가구주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통계 작성에서 가구주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원이 아니라 가구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 4 장 행정자료의 이용방안

여러 나라들의 자산조사방법 및 발표통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산조사는 응답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의 정확성도 다른 조사에 비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산을 조사하기보다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자산을 추계하는 방법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물론 행정자료에는 가구주 특성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과세표준액 등의 가격자료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허등록건수 등 수량자료만을 입수할 수 있는 경우 등 행정자료의 이용에도 문제점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자료들의 전산화로 자료의 누락들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점들을 고려할 때 행정자료의 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계자산 추계에 어떤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자산의 포괄범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 포괄범위와 일치하는 행정자료를 찾는 것이 순서이다. 물론 앞서서도 가계자산으로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그 하위분류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비금융자산에 대한 SNA의 분류를 보면 <부록1> 및 <부록2>와 같다.

SNA의 분류에 의하면 비금융자산은 생산과정에서 산출물로 생산되는 생산자산과 생산과정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존재하게 되는 비생산자산으로 구분된다. 생산자산에는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비, 육성자산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광물탐사,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무형고정자산 및 재고, 귀중품 등이 포함된다.

건물에는 주거용 건물, 주거용 선박 및 차량, 이동식 주택, 조립식 주택, 창고, 공연장, 호텔, 공장, 식당, 학교, 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며 기타구축물에는 도로, 철도, 공항 활주로, 교량, 터널, 지하철, 수로, 항만, 댐, 파이프라인, 통신선, 송전선 등이 포함된다. 기타구축물의 경우에는 주로 사회간접자본으

로 가계자산은 아니다. 건물의 많은 부분은 가계의 소유로 이에 대한 행정자료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운수장비에는 자동차, 트레일러, 선박, 기관차 및 철도차량, 항공기 및 우주선,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이들 자산 중 가장 가계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로 자동차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선박과 항공기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기계 및 장비에는 일반목적기계, 특수목적기계, 사무, 회계 및 계산용 장비, 전기기계기구, 라디오, TV와 통신장비 및 부품, 의료장비, 정밀과학장비 및 시계, 원자로용 원료용기, 가구, 악기, 스포츠용품,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 난방기기 및 부품 등이 포함된다. 기타기계 및 장비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는 건설기계 30종²⁹⁾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육성자산은 육성자산이 제공하는 산출물(알, 우유, 열매 등)을 매년 사용하기 위해 사육되거나 재배되는 가축 또는 나무(젓소, 포도나무 등)로 입목은 취득세를 납부하며, 축산은 시장, 군수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축산업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을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소프트웨어는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및 자체개발과 1년 이상 사용이 기대되는 컴퓨터 DB의 구입, 개발 또는 확장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은 등록을 통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세를 납부한다. 오락, 문화 또는 예술품 원본도 연극, TV 프로그램, 문학 및 예술작품 등이 기록 또는 체화된 필름, 음반, 원고, 테이프 등의 원본으로 창작자는 이들에 대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육성자산의 재공품은 도축이나 벌목으로 단 1번 산출물을 생산하는 가축

29) 건설기계관리법에는 27종이나 행정자치부령에 건설기계 27개와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선별기 3개를 등록한다.

이나 나무 및 육성자산으로서 완전히 자라지 않은 것으로 소, 돼지의 경우에는 도축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임목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임목벌채에 대해 납부하는 면허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귀중품은 생산이나 소비를 1차 사용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치저장을 목적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는 생산자산으로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장기간 질적 저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골동품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대장이나 등록문화재대장에 등록하고 기타귀중품 중 총포류는 사용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다.

비생산자산은 생산과정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존재하게 된 자산으로 토지, 지하자산, 비육성생물자원, 지하수자원 등의 유형비생산자산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무형비생산자산이 포함된다. 토지는 소유권이 행사되고 있는 지면으로 그 지표상의 토양과 지표수를 포함하는데 토지에 대한 행정 자료는 건물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지하자산은 지표면 또는 지하에 위치하는 광물로서 현재의 기술과 상대가격 하에서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확인 매장량으로 광업권, 조광권 및 광물 채취허가와 관련된 조세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즉 광업권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광물채취와 관련된 지역개발세 및 채석 및 토사채취, 광업권 또는 조광권 설정, 해저광물탐사권 설정 및 해저광물채취권 설정, 골재채취와 관련된 면허세 등의 자료가 있다.

지하수자원은 대수층(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 또는 기타 지하수자원 중에서 그 희소가치로 인해 소유권 및 사용권의 행사와 시장평가가 가능하고 경제적 통제수단이 있는 것으로 지하수개발, 샘물개발허가, 댐 사용권 설정과 관련된 면허세 및 지역개발세 자료가 있다.

무형비생산자산인 특허권은 등록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권 및 기타 양도 가능한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무관하게 임대 계약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대차권 또는 계약으로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콘도미

니임회원권 등에 대한 취득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영업권은 영업 중인 기업에 대한 지불가치와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차이로 개인택시면허, 마을버스면허등과 관련된 등록세 취득세 자료가 있다.

<표3> 가계자산별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

가 계 자 산	행 정 자 료	비 고
금융자산	소득세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건축물, 토지
운수장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타기계 및 장비	취득세, 등록세	건설기계
육성자산	취득세 축산업등록, 신고대장 마사회등록	입목 축산 경주마
컴퓨터소프트웨어	등록세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저작권
오락, 문화 또는 예술품 원본	등록세	저작권(문학, 음악, 연극, 무용,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육성자산의 재공품	도축세, 취득세, 면허세	소, 돼지, 입목, 입목벌채
골동품 및 기타예 술품	국가지정문화재대장 등록문화재대장	문화재
기타귀중품	면허세	총포류
지하자산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면허 세	광업권, 조광권, 채석 및 토사 채취, 골재채취
지하수자원	면허세, 지역개발세	지하수 개발, 샘물개발허가, 담사용권설정
특허권	등록세	특허
임대차권 및 기타 양도 가능한 계약	취득세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영업권	등록세, 면허세	개인택시면허, 마을버스면허등

제 5 장 결론

우리나라는 1988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5,10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생활수준 및 경제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처음 가계자산을 조사하였지만 단지 1회성의 조사였다. 그 후 대우경제연구소의 노동패널,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층조사에서 가계자산을 조사하였지만 이는 가계자산에 대한 전문조사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가계자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낮은 응답률, 응답 자료의 부정확성 등으로 가계자산조사는 상당히 어려운 조사로 위에서 외국의 가계자산조사에서 대한 비교, 분석 결과 가계자산조사를 할 때 고려할 점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자산소유의 집중과 부유층의 응답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가계자산 조사이전에 부유층 표본 선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스페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스페인처럼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며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므로 이 2가지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개인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세무자료의 공개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스페인처럼 오히려 세무당국에 표본선정을 의뢰하는 방법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표본의 규모보다는 적절한 표본선정이 더 중요하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비율은 0.009%이지만 부유층에 대한 표본고려 등 자산에 대한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선정 및 표본선정에 사용되는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 등 외국 조사표는 응답시간에 평균 1시간이상 소요되는 많은 조사항목들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응답률을 낮추는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항목을 조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로 간단하게 금융자산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것과 저축액, 소유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 자세한 조사가 물론 자산액의 누락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가계자산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계자산액의 추정 및 가계자산의 분포구조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면 다른 조사보다 응답자들이 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처럼 행정자료를 이용한 가계자산의 추계방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행정자료의 전산화가 진전되면서 자료의 누락이 줄어들고 있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도 줄어드는 측면을 고려할 때 행정자료를 이용한 가계자산추계방법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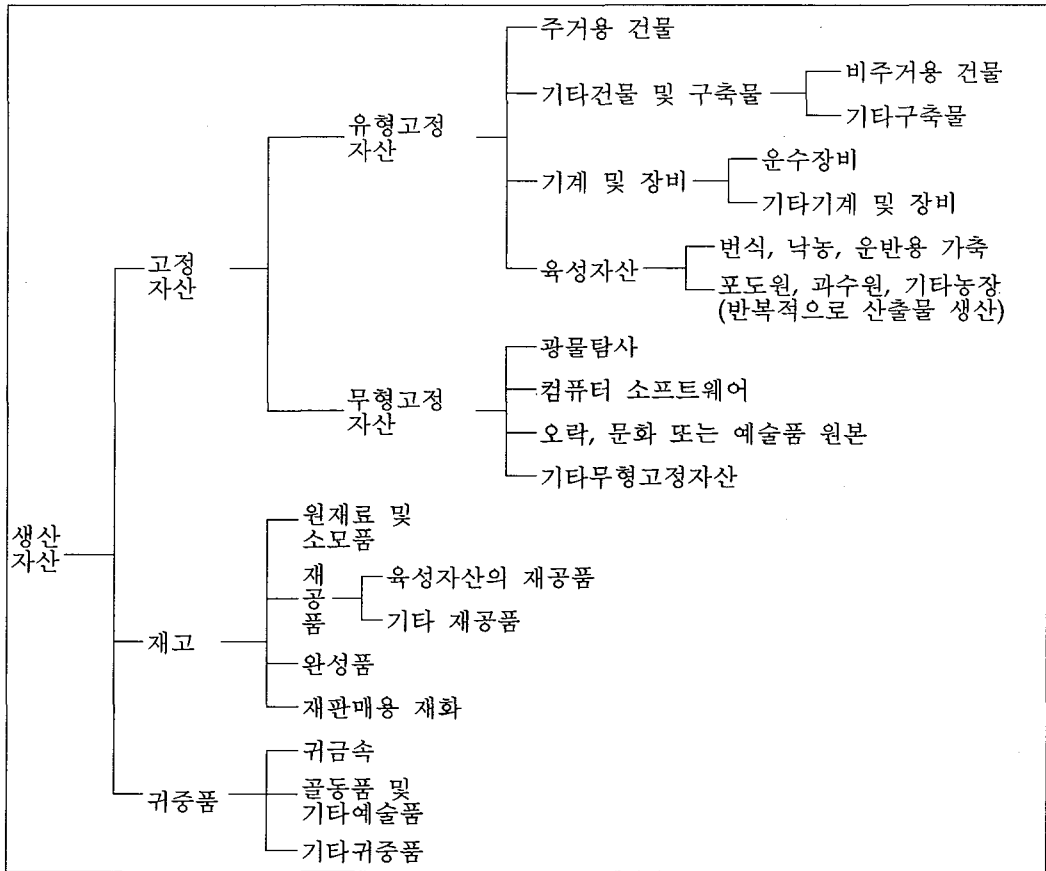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1.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패널조사개요”, 내부자료.
2.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패널조사 외부용역 추진계획(안)”, 내부자료.
3.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패널조사표”.
4. 법제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한국법제연구원.
5. 통계청 국제통계협력과(2004년 7월), 『2004년 2/4분기 호주 통계청 파견관 송부자료』.
6. 한국노동연구원(2004년 6월), 『한국노동패널 1~5차년도 조사자료』.
7.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설문지”.
8. 한국은행, 『1993국민계정체계(상)』.
9. Alex Karagrigoriou,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ampling and surveying in Cyprus”, paper prepared for LWS Workshop, Jan.2005.
10. Ana M. Aizcorbe, Arthur B. Kennickell, and Kevin B. Moore, “Recent 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Evidence from the 1998 and 2001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ederal Reserve Bulletin Jan.2003.
11. Arthur B. Kennickell(May 2000), “Wealth Measurement in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Methodolog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http://www.federalreserve.gov/pubs/oss/oss2/method.html>
12. Arthur B. Kennickell(Jan. 2004), “The Good Shepherd: Sample Design and Control for Wealth Measurement in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paper prepared for LWS Workshop, Jan.2005.
13. Expert Group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The Canberra group, 2001),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14.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http://www.diw.de/english/sop/index.html>

15. Institute for Social & Economic Research, University of Essex,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http://www.iser.essex.ac.uk/ulsc/bhps/>
16. Kristen Northwood, Terry Rawnsley, Lujuan Chen(2002), "Experimental Estimates of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Australia, 1994-2000", Working Paper No. 2002/1,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Sep.2002.
17. LWS(the Luxembourg Wealth Study), <http://www.lisproject.org/lws.htm>
18. Olympia Bover, "THE SPANISH SURVEY OF HOUSEHOLD FINANCES(EFF): DESCRIPTION AND METHODS OF THE 2002 WAVE", paper prepared for LWS Workshop, Jan.2005.
19. Statistics Canada(2001), "The Assets and Debts of Canadians: An overview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Financial Security", Catalogue no. 13-595-XIE.
20. Statistics New Zealand(2000), "SCOPING DOCUMENT for the Household Savings Survey".
21. Statistics New Zealand(2002), "The Net Worth of New Zealanders".
22. Statistics Norway(2004), "Income and Property statistics for Households 2002".
23. The Bank of Italy(2004), "Italian Household Budgets in 2002".
24. the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http://psidonline.isr.umich.edu/Guide/Overview.html>

부 록

<부록1> 생산자산의 종류



<부록 2> 비생산자산의 종류

